

兀曉大師

원

효

대

사



2010

신라  
역사  
인물  
특별전  
1

# 允曉大師

# 『元曉大師』特別展을 열며

## 三界唯心 萬法唯識

“이 세상은 오직 마음먹기 나름이요,

모든 법은 오로지 인식하기 나름이다.”

(원효대사가 무덤의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깨우칠 때 한 말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新羅를 세우고, 일구고, 가꾼 역사상의 인물들을 되돌아보는 ‘신라 역사 인물 특별전’을 기획합니다. 사람을 기리는 일이야말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전시회로서, 누구보다 치열했던 삶을 살았던 7세기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저술가인 元曉大師(617~686)에 대한 특별전을 개최하고 그 내용을 담은 책을 펴냅니다.

일생에 걸쳐 150여 권에 이르는 저술을 남긴 원효대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가능한 한 한 자리에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日本 大谷大學博物館 소장품인 『判批量論』도 국내 최초로 공개합니다. 비록 진본은 아니나 日本 京都의 高山寺 소장 元曉大師真影도 복제하여 전시합니다.

신라 때는 물론이거니와 요즘도 원효대사는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절이 100여 곳에 이르고 원효로나 원효대교와 같은 길이나 다리 이름에도 '원효'가 있습니다. 이처럼 원효대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효대사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특별전이 원효대사와 時空을 뛰어 넘어 만나고 대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和諍과 無碍로 응축되는 원효대사의 사상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전 개최와 이 책의 출간을 도와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佛國寺의 따뜻한 후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귀중한 소장품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동국대학교 박물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박물관, 삼성출판박물관, 불교중앙박물관, 범어사성보박물관, 통도사성보박물관, 포항 오어사, 광주 원효사, 김민영 소장가, 안상빈 소장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그리고 大谷大學博物館 및 圖書館과 高山寺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문에 응하시고 글을 써 주신 김상현 교수와 남동신 교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 9월

國立慶州博物館長  
李榮勳

# 신라 역사 인물 특별전 1 元 眇 大 師

## 출판 기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동국대학교 박물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박물관

삼성출판박물관

범어사성보박물관

동도사성보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원효사

포항 오어사

김반영

안상빈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日本 大谷大學 博物館·圖書館

## 후 원

경주시

불국사

## 총 팔 이영훈

전시기획 김승희 박진우 진정환

작품진영 김현희 윤상덕 이양수 이정은 윤지연 신용비 김종우 박숙경

도록판집 김승희 박진우 진정환

원 고 김상현 남동신 西山厚 김승희 진정환 오영미

교 정 박진우 이재열 윤상덕 이양수 이정은 윤지연 이지원 한영미

사 전 오세윤 유수

## 알려두기

- 이 책은 국립경주박물관이 2010년 9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개최하는

'신라 역사 인물 특별전 1 원효대사'의 도록이다;

- 사진 설명은 명칭에 이어 저자(작가), 제작, 크기, 연대, 소장처, 지정번호 순으로 표기하였다.

- 크기의 단위는 cm이며, 전적, 텁본, 서화의 경우에는 세로×가로로 표기 하였으며, 그 밖의 것은 높이이다.

- 이해를 돋기 위해 미전시품의 사진도 수록하였다.

## 목 차

『元曉大師』特別展을 열며	이영훈	2
들어가며 PROLOGUE		6
치열했던 원효의 삶		8
원효元曉의 생애生涯와 신라新羅 사회社會	김상현	54
원효元曉와 관련된 사찰寺刹	진정환	62
원효를 추억하며		70
역대歷代 원효진영元曉眞影의 흐름	김승희	94
위대한 사상가 원효		122
원효元曉의 저술著述과 사상思想	남동신	126
영원한 스승, 원효		166
『화엄종조사회전華嚴宗祖師繪傳』-의상義湘, 원효元曉, 그리고 묘에明惠	西山厚	174
나가며 EPILOGUE		198
<hr/>		
부 록		
3대 전기傳記		202
저술著述 목록目錄		212
관련 사찰寺刹 목록目錄		214
참고문헌參考文獻		216
『華嚴宗祖師繪伝』- 義湘と元曉と明惠		222
The Great Master of Silla Dynasty Wonhyo		

## 들어가며 PROLOGUE

### 탄생誕生

부처님 담, 불지촌佛地村에서 태어난 아이  
석가모니의 열반을 지켰던 사리나무 아래에서 태어난 아이  
깨달음을 얻을 운명을 타고난 아이  
그 이름, 새털 또는 서당誓幢

### 선지식善知識

눈 속의 먼지를 닦아줄 스승을 찾아 나선 청년  
영축산靈鷲山 낭지朗智스님께 배운 법화경法華經  
반룡산盤龍山 보덕普德스님께 배운 열반경涅槃經  
운제산雲梯山 해공惠空스님께 배운 무애행無碍行  
그리고 영원한 도반道伴, 의상義湘

### 오도悟道

젊은 날 당唐나라로 떠난 유학 길  
큰 비 만난 어느 날 저녁  
토굴에서의 꿀맛 같던 잠  
어슴푸레 동틀 무렵  
해골이 텅구는 무덤임을 알아채고  
결국 모든 것이 오직 마음에 달려 있음을 깨달은  
승려, 원真元曉

파계破戒

오랜 수행 끝

남산에서 내려와 월정교를 건너다 물에 빠진 원효

요석공주와의 숙명적 사랑

그리고 설총薛聰의 탄생

범부凡夫, 원효元曉

환속還俗

높았던 콧대를 꺾고

한없이 낮은 곳으로 임한

거사居士, 소성小性

교화教化

거리에서 무애가無碍歌를 노래하고 춤추는 것으로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싣고 가는 수레가 되었던

중생이 걸어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되었던

보살菩薩, 원효元曉

학문學問

경전經典마다 써내려간 주석註釋과 논소論疏가

책 상자 가득하였던

대학자大學者, 원효元曉

입적入寂

일흔, 불향기 가득한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던 토굴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 듯

혈사穴寺에서 영면永眠한 원효元曉



# 치열했던 원효의 삶

輿甘愛養 此身定壞  
着柔守護 命必有終

좋은 음식 먹이고 사랑하여 길러도  
이 몸은 반드시 허물어질 것이며  
비단 옷으로 보호해도  
목숨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으리



## 치열했던 원효의 삶

600

610

620

630

640

원효

- 617년(1세)  
임령군押梁郡  
불지촌佛地村에서  
태어나다  
『삼국유사三國遺事』



- 632년(15세 무렵)  
‘관발지년迦髮之年’  
(머리를 두 가닥으로  
땋은 어린 나이)에  
불법佛法에 들어가다  
『송고승전宋高僧傳』

- 640년대~650년대  
원효 駭山에서  
남지朗智에게서 배우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원효 향사사恒沙寺  
(오어사舟漁寺)에서  
혜공에게서 배우고 놀다  
『삼국유사三國遺事』



한국

- 603년  
고구려高句麗 신라  
북한산성을 공격하다
- 608년  
신라新羅 원광圓光이  
지은 절사표乞師表를  
수隋에 보내다.

- 612년  
고구려高句麗  
실수대첩撒水大捷에서  
수隋를 물리친다
- 613년  
원광圓光 주재로  
황룡사皇龍寺에서  
호국법회 개최하다

- 624년  
고구려에 당으로부터  
도교가 전래되다
- 629년  
신라 김유신金庾信  
고구려 낭비성娘臂城을  
함락하다

- 634년  
신라 분황사芬皇寺  
창건하다
- 636년  
신라 황룡사에서  
백좌인왕경회  
百座仁王經會를 베풀다

- 642년  
백제 신라의 대야성  
大耶城을 함락하다
- 645년  
황룡사 9층 목탑을  
자장慈藏의  
건의로 세우다
- 645년~649년  
고구려 당의 침입을  
격퇴하다
- 649년  
신라 중국의 의관을 채택  
하다

중국·일본

- 605년  
수隋 대운하 공사를  
시작하다

- 618년  
중국 당唐이 서다

- 626년  
당 태종太宗 즉위하다

- 636년  
돌궐 당에 항복하다
- 637년  
당 정관율령貞觀律令을  
제정하다

- 645년  
당 현장玄奘 17년간의  
인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다
- 왜倭 다이카개신  
大化改新을 단행하다

- 650년(34세)  
원효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 길에 오르다  
『삼국유사三國遺事』

반룡산盤龍山에서 보덕普德을  
만나 배우다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

- 654년~661년(무열왕대)  
원효와 요석공주璣石公主 사이에  
설총薛聰이 태어나다  
『삼국유사三國遺事』



- 650년  
고구려 승僧 보덕普德  
백제로 이주하다

- 654년  
신라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즉위하다

- 659년  
당 측천무후則天武后가 득세하다

- 662년(46세)  
김유신의 고구려 원정에서  
큰 공을 세우다  
『삼국유사三國遺事』

- 660년대~680년대  
원효 환숙하여 노래와  
춤으로 대중을 교화하다  
『삼국유사三國遺事』

- 660년  
백제 멸망하다

- 661년  
의상 당에 유학하다

- 668년  
고구려 멸망하다

- 666년  
당 태산泰山에서 제사지내다

- 671년(55세)  
행명사行名寺에서 「판비랑론判比  
量論」을 저술하다  
『판비랑론判比量論』

- 670년  
의상 당에서 귀국하다

- 676년  
신라 당나라군을 모두  
몰리치고 삼국을 통일하다

- 679년  
의상 부석사를 창건하다

- 679년  
문무왕文武王 사천왕사四天王  
사찰을 창건하다

- 670년  
왜 국호를  
일본日本으로 정하다

- 686년(70세)  
원효 혈사穴寺에서  
입적하다  
『서당화상비誓幢和上碑』



- 681년  
신문왕神文王 즉위하다

- 682년  
신문왕 감은사感恩寺를 완공  
하다

- 685년  
신라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편성하다

- 683년  
당 중종中宗 즉위로  
측천무후가 정권을 잡다

## 언제 어디서 태어났을까?

위대한 인물이 그려하듯 원효의 탄생에도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신비로움이 서려있다.『삼국유사 三國遺事』에는 원효의 어머니가 밤나무 밑을 지나다 산기産氣를 느껴 집으로 가지 못하자 원효의 아버지가 나무에 옷을 걸쳐서 산실庵室을 만들어 원효를 낳았다고 한다. 이는 석가모니의 어머니 마야부인이 무우수無憂樹 아래에서 석가모니를 낳은 이야기와 비슷하다. 또한 원효의 어머니는 유성流星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원효를 임태하였으며, 해산하려 할 때에는 오색 구름이 땅을 덮었다고도 한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원효는 진평왕眞平王 39년(당唐 대업大業 13년), 즉 617년에 태어났다.『서당화상비誓幢和上碑』에 “수공垂拱 2년(686) 3월 30일 혈사에서 생을 마치니 춘추 일흔이다”라고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아도 617년에 탄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효가 탄생한 곳은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압량군押梁郡(지금의 경산慶山) 남쪽 불지 촌佛地村 북쪽 밤나무골 사라수娑羅樹 아래이다. 원효가 태어난 곳을 ‘부처님 땅’, 불지촌이라고 한『삼국유사』기록을 볼 때 이미 원효에 대한 성사화聖師化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경산시 자인면에는 원효가 태어난 곳에 세웠다는 사라사터가 있으며, 경산 일대에는 삼성산三聖山에서 설총, 일연과 더불어 원효가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렇다면 원효의 본래 이름은 무엇일까? 이는『삼국유사』「원효불기」조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원효의 속성은 설薛씨이다. 원효의 어렸을 적 이름은 서당誓幢이었다. ‘서誓’는 ‘설다’의 이두식 표현이고, ‘당幢’은 ‘털’을 일컫는 말이다. 그의 이름은 ‘새로운 털’ 즉 ‘새털’, ‘서당’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원효의 출신 성분은 어떠했을까? 그의 할아버지는 임피공仍皮公 또는 적대공赤大公이라 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담내談捺로 신라 16관등 중 11위인 나마奈麻의 관등에 있던 사람이다. 설씨의 본거지가 신라 육부 가운데 하나인 습비부이고 아버지가 경주 출신에게만 수여되는 관등을 지녔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원효의 조상은 왕경인王京人이었음을 알 수 있다.

## 삼국유사 권4 의해5 원효불기

三國遺事 卷4 義解5 元曉不羈

일연一然

33.0×20.3cm

조선 초 14세기 말

법어사성보박물관

보물 제419-3호

성사聖師 원효元曉의 속성은 설薛씨이다. 할 아버지는 임파공乃皮公 또는 적대공赤大公이라고 한다. 지금 적대연赤大淵 염에 임파공의 사당이 있다. 아버지는 담내櫟株 내 일乃末이다.

처음에 압량군押梁都의 남쪽(지금의 장산군 章山郡) 불자촌佛寺村 북쪽의 밤골 사리수娑羅樹 아래에서 태어났다.

마을 이름은 불자佛地 또는 밤자촌發智村이라고 한다.(속어로 불등을 촌佛等乙村이라고 한다.)

대사의 어릴 때 이름은 서당普幢인데 혹은 신당新幢이라 한다.(당幢은 속어로 텔이다) 처음에 어머니가 유성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임신하였는데, 해산하여 할 때 오색구름이 땅에 덮었다. 때는 진평왕 39년 대업大業 13년 정축년丁丑年이었다.



## 송고승전 원효전

宋高僧傳 元曉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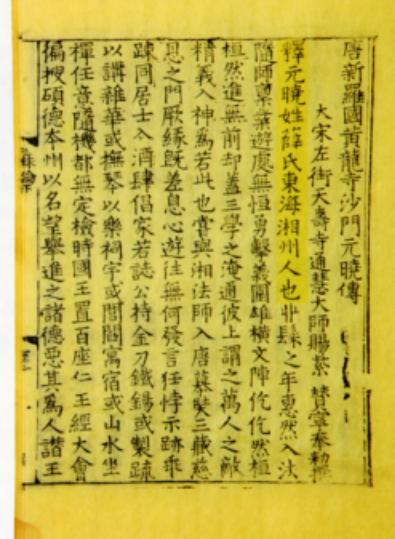
찬녕贊寧

40.5×30.5cm

1960년대 인출 목판본

삼성출판박물관

원효 스님은 성이 설씨요 동해 상주湘州 사람이다.



## 왜 출가出家하였을까?

원효는 「송고승전宋高僧傳」에 따르면 '관발지년佛髮之年', 즉 양 갈래 머리를 한 어린 시절에 출가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출가한 나이는 15세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삼국유사」 「원효불기」 조에 따르면 그는 출가하여서는 자신의 집을 희사하여 초개사初開寺로 삼았고 자신이 태어난 사라수 옆에 사라사婆羅寺라는 절을 치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그런데 원효는 왜 출가하였을까? 원효는 비록 전골은 아니었지만, 귀족이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불가佛家에 들어서는 것이 쉬웠을까? 이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이 그의 전기에는 없다. 다만, 원효가 살던 시대 상황과 결부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600년대 신라는 백제, 고구려와 무시無時로 전쟁을 벌였던 시기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삼국 간의 전쟁은 4세기 54회, 5세기 60회, 6세기 50회에서 7세기에 150회로 급증하였다. 특히 원효가 출가를 결심한 7세기 전반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서로 물고 물리다가 점차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던 시기이다. 남의 영토와 주민, 물자를 약탈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전쟁 속에서 원효는 인간성 상실을 목격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아비규환阿鼻叫喚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으려 하였을 것이다.

한편 600년대 전반 신라 사회 내부는 과연 어떠하였을까? 아시다시피 신라 사회는 골품제骨品制 사회였다. 골품제는 혈통에 따라 정치적 출세는 물론 건축물의 면적에 이르는 일상생활까지도 제약하였다. 원효는 6두품이었다. 6두품 이하는 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골품제라는 유리 천장에 막혀 일정한 관직 이상은 나아가지 못했다. 골품제 아래에서 6두품의 좌절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설계두薛闡頭(?~645)이다. 6두품 출신인 그는 골품 때문에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그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없음을 한탄하며 당나라에 망명하였던 인물이다. 이러한 울분이 원효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골품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설계두 같은 인물이 장수로서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였다면, 강수强首(?~692) 같은 인물은 유교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는 '불교는 세속을 도와시한 가르침이니, 인간 세계의 사람으로서 유교의 도를 배우고 싶다'며 유교 경전에 매진하였다고 한다.

원효는 전쟁의 공포, 살려는 자와 죽이려는 자들의 아비규환에서 벗어나고, 차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세속과는 다른 세계 즉, 불교에 매진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닐까?

## 삼국사기 권47 열전7 설계두

三國史記 卷47 列傳7 設計頭

김부식金富軾

30.8×20.2cm

조선 후기 금속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

신라는 철저한 골품제 사회였다. 골품제는 법흥왕 때(514~540) 이루어진 이래 관직, 거주지의 크기 등 신라인들의 생활 전반을 통제하던 제도이다. 이러한 골품제 아래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관직에 등용되지 못하였다. 골품제에서 성과와 진급에 들지 못한 능력 있는 청년들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설계두의 일화이다. 설계두는 골품제의 한계를 느끼고 621년 당나라로 건너갔다. 당나라 군에 들어간 그는 고구려 원정에 자원하여 용감히 싸우다 전사하는데, 그의 이야기를 들은 당태종이 그를 대장군으로 삼고 예를 갖추어 장사지했다고 한다. 설계두가 중국으로 떠난 해는 원효가 9살 되던 해이고, 출가하기 불과 6년 전의 일이었다. 이제 막 장래의 계획을 세우던 원효가 겪었을 심정은 역시 설계두의 그것과 같았을 것이다.

설계두가 말하기를 “신라가 사람을 쓰는데  
골품을 따지니, 실로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다한들, 그 장벽을  
넘을 수 없다.”



## 삼국사기 권46 열전6 강수수

三國史記 卷46 列傳6 強首

김부식金富軾

30.8×20.2cm

조선 후기 금속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

대답하여 이르되, “제가 들으니 불교는 세속  
을 도외시한 가르침인데, 저는 인간 세계의  
사람으로서 어찌 부처가 하는 것을 배우겠습  
니까? 유교의 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골품제의 한계를 느꼈던 다른 신라의 청년들은 어떻게 이를 극복하였을까? 신분의 제약으로 고위직에 오르지 못했던 6두품 이하의 귀족들은 학문이나 종교 분야에 진출하여 두각을 나타내었다. 종교 분야에 투신한 예가 원효라고 한다면, 강수强首는 “불교는 세속을 도외시한 가르침인데, 인간 세계의 사람으로서 어찌 부처가 하는 것을 배우겠습니까?”고 반문하면서 유학을 배우는데 매진하였다.



### 대당평백제국비명(립본)

大唐平百濟國碑銘(楊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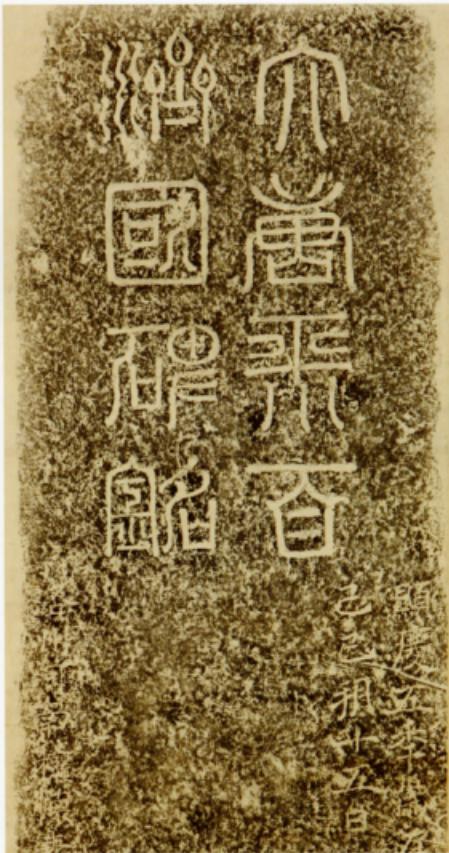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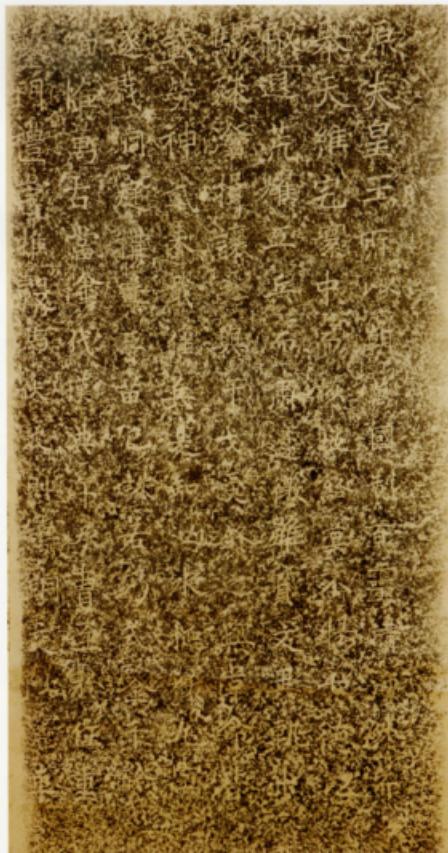
글자크기 4.3cm

백제 660년

국립중앙박물관

당나라 소정방蘇定方(592~667)이 백제의 수도 사비酒趾를 점령한 후 정립사定林寺 오충석탑 1층 탑신에 새긴 전승기념비문이다. 그 내용은 당나라와 신라가 힘을 합쳐 백제의 사비도성을 함락시킨 사적을 적고 있다.

7세기 전반 신라는 이웃한 백제는 물론 고구려에게도 수 없이 침략을 당했다. 특히 선덕여왕 때 두 나라의 침략이 극에 달하여 국가의 존망存亡에 위태로울 지경이었다. 신라는 총력전을 펼치는 한편 당唐나라의 지원을 받고자 하였다.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늙고 병들었어도, 노모를 부양할 가족이 없어도 군대에 징집되어 전쟁에 나갔다. 전쟁이 계속될수록 백성들의 삶은 궁핍해지고 피폐해졌다.



## 문무왕비

文武王碑

높이 60.0cm(이례), 45.0cm(위)

신라 661년 무렵

국립경주박물관

백제百濟와 고구려高句麗를 멸망시킨 당唐은 신라新羅마저 지배권 안에 포함하려 하였으나, 문무왕文武王(재위 661~681)을 중심으로 신라는 당과의 통일전쟁을 거쳐 676년 완전한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

이 비석은 사천왕사四天王寺에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자하다시피 왕의 비석은 왕 능 앞에 두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문무왕의 능이 동해 바다 대왕암大王巖이라서, 문무왕과 인연이 깊은 사천왕사에 세웠던 것으로 여겨진다. 비석의 내용은 신라에 대한 친미讚美, 신라 김씨의 내력, 태종무열왕의 치적, 문무왕의 사적 및 백제 평정에 관한 내용, 문무왕의 유언 등이다.

이 비석은 어느 때인가 사라졌다가 1796년 경주부윤을 지냈던 흥양호洪良浩(1724~1802)가 두 조각을 발견하여 경주 관아에 옮겨 놓았다. 일제강점기 경주 관아가 헐리고 민가가 들어서면서 자취를 감췄던 비석은 그 하단부가 1960년에, 상단부가 2009년 각각 발견되었다.



뒷면後面



앞면前面



뒷면後面



앞면前面

## 원효를 일깨운 선지식은 누가 있을까?

원효는 『송고승전宋高僧傳』에 '스승을 따라 배우되, 일정하지 않았다'라고 언급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스승에게서 배웠으나 하나의 종파에 머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원효가 영축산靈鷲山 서북쪽에 있는 반고사蟠高寺라는 절에 머물 때에는 그 산의 동쪽에 있던 낭지朗智를 찾아 배웠다. 661년 지동智通(?)이 낭지에게 출가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낭지는 7세기 전반에 주로 활동하던 승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낭지는 수십 년 동안 암자에 머무르며 항상 『법화경法華經』만 강의하였다고 하며, 원효에게 『초장관문初章觀文』이나 『안신사심론安身事心論』을 짓게 하기도 하였다. 모든 중생衆生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일승사상一乘思想을 근본 내용으로 한 『법화경』은 후에 원효의 중생제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승사상은 보덕普德(?)에게도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보덕은 원래 고구려의 승려였는데 고구려에서 도교 진홍책을 펴자 650년 백제 고대산孤大山으로 옮겨가게 된다. 원효가 보덕을 만났을 때는 650년 무렵으로 생각된다. 의상과 함께 유크로 통해 당나라 유학을 떠났을 때 고구려에 있던 보덕에게 『열반경涅槃經』과 『유마경維摩經』을 배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열반경』에서는 악당까지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승사상을 핵심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마경』은 원효의 대종교화에 사상적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스승은 혜공惠空(?)이다. 원효가 포함 운제산雲梯山에 머물며 저술할 때, 항사사恒沙寺에 주석하고 있던 혜공을 찾아 의문스러운 것을 물었다고 한다. 혜공의 저술이 남아 있지 않지만 혜공이 '반야공관사상般若空觀思想'을 핵심으로 한 『조론肇論』을 자신이 지은 책이라고 할 만큼 『조론』에 일가견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원효의 저술 속 문장에서 『조론』의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보아 혜공의 영향 역시 컸음을 알 수 있다.

'반야공관사상'을 바탕으로 당시까지 중국에서 성행하던 주요 대승사상을 망라한 『금강삼매경』을 편집한 대안大安도 원효의 저술 및 사상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저잣거리에서 '대안'을 외치며 중생을 깨우친 그의 삶 역시 원효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효와 함께 중국 유학을 시도하였던 의상義湘(625~702)은 비록 원효보다 여덟 살이나 어리지만, 원효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원효와 의상은 하나부터 열까지 같은 것이 없었다. 원효가 6두품 출신이었다면, 의상은 진골귀족 출신이었다. 원효가 요석공주瑤石公主와 사랑에 빠졌다면, 의상은 자신에게 반한 아리따운 선묘善妙에게 끝까지 마음을 얻지 않았다. 학문에 있어서도 원효는 불교의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진 반면, 의상은 화엄학華嚴學 하나에 매진하였다. 원효가 대중 교화를 위해 저잣거리를 쏘다녔다면, 의상은 제자 교육에 온 힘을 쏟았다. 그럼에도 원효와 의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영원한 도반道伴이었음은 틀림 없다.

삼국유사 권5 피은8 낭지승운 보현수

三國遺事 卷5 避隱8 朗智乘雲 普賢樹

일연一然

33.0×20.3cm

조선 초 14세기 말

방어사성보박물관

보물 제419-3호



원효가 반고사에 있을 때 늘 낭지를 찾아가 봐니 그는 원효에게 「초장관문」과 「안신사심론」을 저술하게 했다. 원효는 저술을 끝내자 은사博士 문선文善을 시켜 글을 보내면서 시를 적어 보냈다.

서쪽 골짜기 사마沙彌는 공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동쪽 봉우리 상덕上德 고암高岩 전에  
가는 티끌 불어 보내 영축산에 보태고  
가느다란 빗방울 날려 용연에 던집니다.

猶未能昭格今汝已受吾不及汝遠矣反權智通固名  
其桂曰普賢通曰法師住此其已久如曰法興王丁未  
之歲始寓是焉不知今幾通到山之時乃大武王即位  
元年辛酉歲也許已一百三十五矣矣過後詣戴湘之  
室升堂觀奧賜寶玄化寔難洞記主也元曉性瑞萬  
奇時常往謁皆令著杓筆觀文及女身夢心論曉號  
使隱士文善奉書輒遣其屬星述揚云西公沙弥持  
禮東岳上德高嚴前因福滿在靈華之兩方故以細學  
捕鷺岳飛以微滿授龍淵五山之東有大和江乃焉中  
國大和池龍祖福所創故云龍淵興時號大聖也二

## 대각국사문집 권19

### 도반봉산연복사례보덕성사비방구지

大覺國師文集 卷19

到龍山延福寺禮普德聖師飛房舊址

29.8×20.6cm

1943년 해인사海印寺 인출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비례방장 빈 자취를 남쪽 땅에서 바라보며  
옛적 숨어 지내시던 자취를 향해 여기에서  
경의를 표합니다.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이 일찍이 도를 물으셨  
다는데 감개무량한 마음 길이 그리며 돌아가  
지 못하겠습니다.



## 오어사

吾魚寺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운제산에 있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579~632)에는  
항사사<sub>航</sub>沙寺였다. 그러나 원효와 혜공의 일  
화로 어느 때인가 '오어사'라 부르게 되었  
다. 절에는 조선후기 목조건축인 대웅전(경  
상북도 문화재자료 제88호)을 비롯하여 고  
려 고종 3년(1216)에 만들어져 오어사에 달  
았다는 기록이 있는 범종(보물 제1280호)이  
남아 있다. 이 절에는 원효가 직접 썼다고  
하는 삿갓과 청동술<sub>銅</sub>기락이 있다.



三國遺事 卷4 義解5 二惠同慶

일연一然

33.0×20.3cm

조선 초 14세기 말

벼어사성보박물관

보물 제419-3호

이 때 원효는 여러 불경의 소를 친숙하고 있었는데, 늘 혜공에게 가서 물거나 서로 장난 치기도 하였다.

어느 날 혜공과 원효가 시내를 따라가며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고 돌 위에 대변을 보니 혜공이 그것을 기리키며 놀렸다. “당신은 둑을 누고, 나는 고기를 누었네”

이 일로 인해 절의 이름을 오어사(吾魚寺)라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원효의 말이라고 하지 만 잘못이다. 민간에서는 그 시내를 잘못 불러서 모의천(莫矣川)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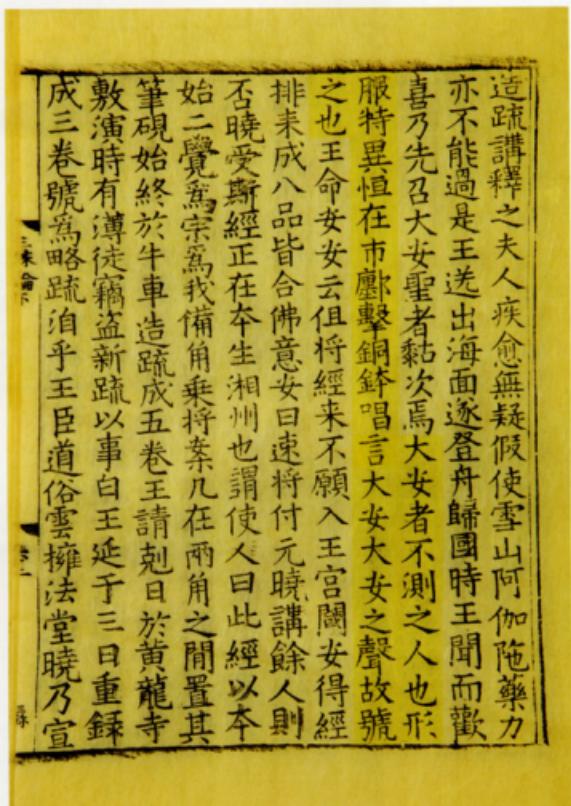
宋高僧傳 4卷 義解2 元曉傳

진녕贊寧

40.5×30.5cm

1960년대 인출 목판본

삼성출판박물관



그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외형이나 의복은 아주 이상했고 항상 저잣거리나 가게 안에 머물러 있었다. 구리로 만든 바릿대를 치면서 “대안大安”, “대인大安”하고 소리쳐 ‘대안’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 삼국유사 권4 의해5 의상전교

三國遺事 卷4 義解5 義湘傳教

일연一然

33.0×20.3cm

조선 초 14세기 말

범어사성보박물관

보물 제419-3호

의상법사는 아버지가 한신韓信이며, 성은 김씨이다. 나이 29세에 경주 황복사皇福寺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는 얼마 후 중국으로 가 부처의 교화를 보고자 원효와 함께 요동으로 갔다가 번방의 순례군에게 청탁자로 잡혀서 수십 일이나 급금을 당했다.

그러다가 간신히 빠져나와 돌아 왔다. (이 것은 최자원이 지은 의상본전과 원효대사의 행장에 기록되어 있다.) 영휘永徽 초(650)에 때마침 당나라의 사신으로 본국에 돌아가는 베편이 있었으므로 그 배를 타고 중국에 들어갔다.



## 삼국유사 권3 탑상4 전후소장사리

三國遺事 卷3 塔像4 前後小將舍利

일연一然

30.4×20.9cm

조선 후기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여기에도 기록된 의상전을 살펴보면, 영휘永徽 초(650)에 의상이 당나라에 들어가 지엄법사 賈嚴法師(602~668)를 만났다 하였으나, 부석사浮石寺의 본비本碑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의상은 무덕武德 8년(625)에 태어나서 소년 시절에 출가했다. 영휘 원년(650)에 원효와 같이 당나라에 들어가려고 고구려까지 갔다. 그러나 장애가 있어 돌아왔다. 그 후 응식應食 원년(661)에 신유(661)에 당나라에 들어가서 지엄법사에게 나아가 배웠다. 종장總章 원년(669)에 지엄법사가 세상을 떠나자 힘형咸亨 2년(671)에 의상은 신라로 돌아와서 장안長安 2년 암민(702)에 세상을 떠났다. 이 때 나이 78세였다.

按此錄義闡傳云永徵初入唐謁智嚴法師於湘江寺。武德八年生祚出家永徵元年庚戌與元曉同伴欲西入至高麗有難而回至龍朔元年辛酉入唐就學於智嚴。極章元年徵遷化成寺二年癸未溫嶺羅長安三年壬寅示滅年七十人羽廷典嚴公集於宣德寺。請天言佛升在辛酉至戊辰七八年間也。本朝高僧

天

詳記大般東漸洋乎應矣。試讀曰。華月失風而陽烟鹿園鵝樹二千年成傳海外真旌策東雲語執共一



의상대사 진영

義湘大師 眞影

비단에 채색墨本彩色

124.3×91.3cm

조선 1767년

범어사성보박물관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5호

新羅國師華嚴宗主義湘大師真影



## 의상대사 진영

義湘大師 眞影

비단에 채색繪本著色

166.7×63.8cm

일본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 1336~1573)

일본 교토京都 고산사高山寺



釋氏源流 遷國傳法 木板

28.3×64.0cm

조선 1673년 목판본

불암사佛巖寺

보물 59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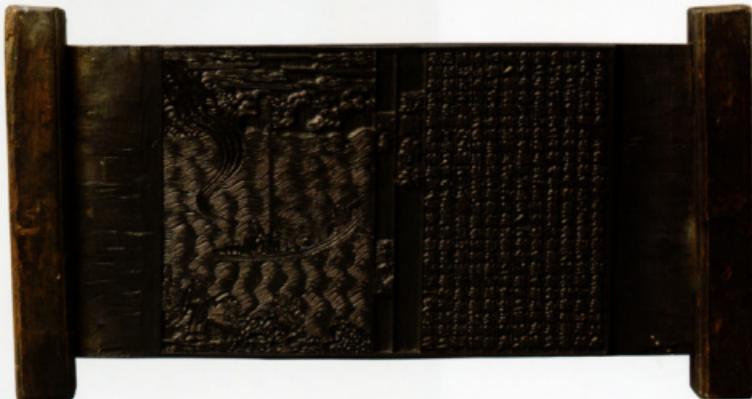
『석씨원류옹화사직擇氏源流應化事蹟』은 줄여서 『석시원류擇氏源流』라고 하는데, 석가모니釋迦牟尼의 일대기와 인도, 중국, 한국 등지에 불법이 전파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책이다. 우리나라에는 사명대사四溟大師(1544~1610)가 일본에서 가져온 『석씨원류』를 바탕으로 1631년 선운사禪雲寺에서 개판한 것과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정두경鄭斗卿(1597~1673)이 가져온 것을 바탕으로 남양주 불암사佛巖寺에서 1673년에 개판한 것 두 본이 있다.

『석씨원류』 권3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전법遷國傳法」은 의상이 당나라에서 신라로 돌아가 법을 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림은 의상이 탄 배가 중국을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高僧傳云唐擇義相新華國人附商舶達登州到一家見湘客  
色挺拔留連門下既又有少女麗服靚粧名曰善妙巧嫋嫋之  
湘心石不可轉也女調不見答頗發道心發願言生生世世歸  
命和尚學習大乘相徑趨長安智嚴法師所綜習華嚴經所謂  
知微知章有倫有德親云滿歲海墘遊乃識回程傳法問訪  
湘入國數闡斯經國王欽重以田莊奴僕施之湘言於王曰我  
法平等高下均貴賤同授經云不淨財何栽田之有何奴  
僕之為貧道以法界為家以盡耕待緣法身慧命藉此而生湘  
貴如說行譯宣之外精勤修鍊莊嚴利海靡憚寒涼止蓄三衣  
耕鉢之餘曾無他物凡弟子請蓋不敢造次伺其怡寐而後啓  
發乃詣疑解滯必無津核自是已來雲遊不定稱可我心卓錫  
而居學侶峯屯問答章疏皆明華嚴性海號東華嚴初祖也

## 還國傳法



## 백화도량발원문

百花道場發願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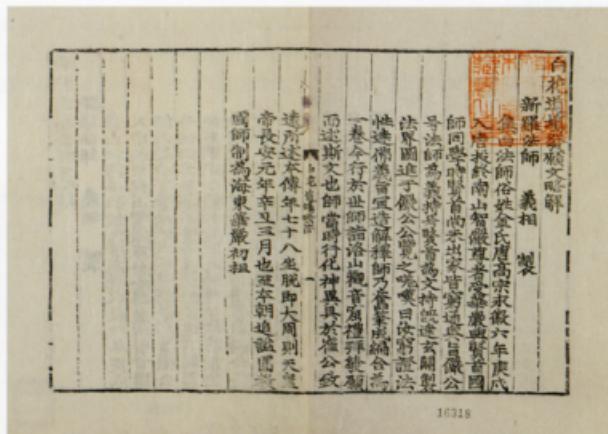
의상義湘

28.7×19.8cm

고려 1334년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백화도량발원문』은 의상이 관음보살의 진신真身을 친견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자신의 신앙고백을 담은 300여 자의 짧은 글이다. 이 발원문은 고려 충숙왕 15년(1328) 체원體元(?~?)이 주석한『백화도량발원문약해百花道場發願文略解』에 수록되어 있다.



## 백화도량발원문약해 목판

百花道場發願文略解 木板

체원體元

반각 19.5×14.5cm

고려 1334년

해인사海印寺

국보 206-25호

의상이 쓴 『백화도량발원문』의 해설서인 체원의 『백화도량발원문약해』의 목판이다. 위의 것은 의상의 『백화도량발원문』 내용이고 아래의 것은 『백화도량발원문약해』의 개판년도와 개판지가 기록된 목판이다. 이에 따르면 이 목판은 원통元統 2년(1334) 7월 계림부鶴林府 즉 오늘날의 경주慶州에서 만든 것이다.



## 일승법계원통기

一乘法界圓通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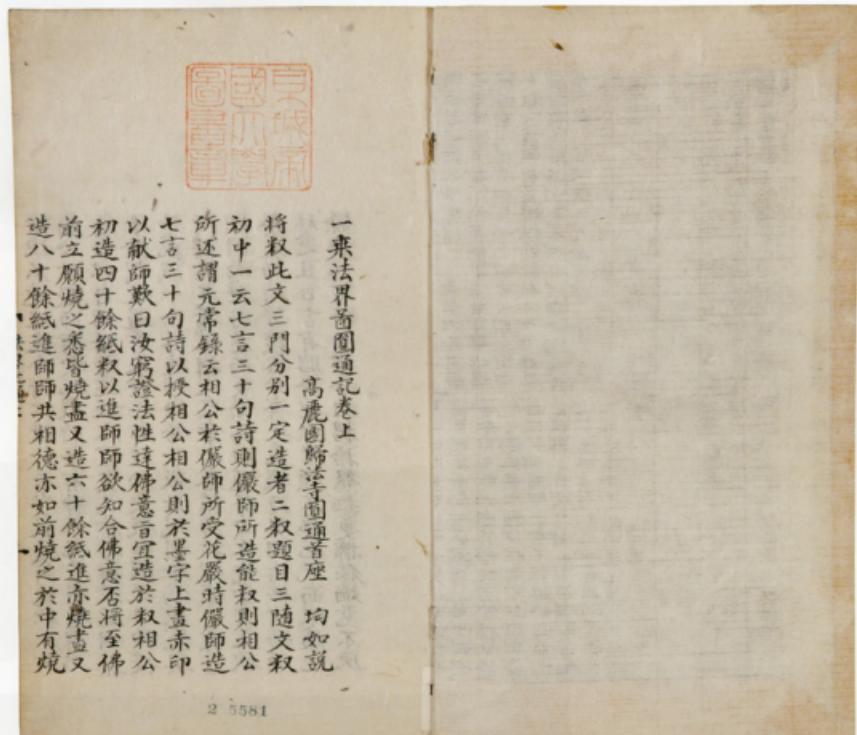
균여均如

19.5×14.5cm

조선 후기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일승법계원통기—乘法界圓通記』는 고려 초의 이름 높은 승려인 균여均如(923~973)의 저술이다. 균여는 여기에서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당 법장法藏(643~712)의 것으로 여겨졌던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가 의상의 저술임을 밝혔다.



## 대화엄일승법계도

大華嚴一乘法界圖

김시습金時習

23.0x149cm

조선 임진왜란 이전 목판본

김민영

이 책은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1435~1493)의 저술로, 의상의『화엄일승법계도』를 주식한 책이다. 조선 성종成宗 7년(1476)에 쓴 서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人去法空 遍計妄分別 國城門詣  
二相本末同 依他假不通 指持若執蓬  
於諸生性 又 有因名昔号 有多別解 有皆  
心外斷絶眼 半私有體在 無有之夢形 妙足  
無因性 有世山谷善  
有全情 初著有夢序 此全副軸

### 大華嚴法界圖序

清寒雪本註并序

夫大華嚴華藏法界者以虛空為體以法  
界為用以遍一切處為佛以緣起法體為  
衆會說圓滿修多羅教所謂剎說塵說佛  
說善薩說三世一時說是也法界圖者以  
一海印圖圓攝無邊之教海圖中所謂一  
莊嚴無盡之義以彌陀身專門舊學重演

## 중국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송고승전』에 '스승을 따라 배우되, 일정하지 않았다'라고 언급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효는 많은 스승을 찾아 배웠을 것이다. 여기에는 영축사 靈鷲寺의 낭지朗智, 향사사 檢沙寺의 혜공惠空 등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원효가 불경의 소疏를 찬술하다가 막히는 것을 혜공에게 물었다는 것으로 보아 원효는 이미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상태였을 것이다. 그런 그가 왜 중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을까?

## 원효가 중국 유학을 가게 된 이유는?

『송고승전』에 따르면 삼장법사 三藏法師 현장玄奘(602~664)의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17년간의 인도 유학을 마치고 645년 돌아온 현장은 새로운 유식학唯識學을 소개하고 불경佛經과 논서論書를 번역하여 보급하였다. 이것을 보통 '새로운 번역', '신역新譯'이라 한다. 원효는 구역에서 깨닫지 못한 것을 바로 이 '신역'에서 찾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원효가 중국 유학을 결심하기까지는 당시 신라와 당의 밀접했던 관계가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다. 고구려와 백제의 연합으로 고립되었던 신라는 648년 김춘추金春秋(602~661)를 당나라에 파견하여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급기야 진덕여왕眞德女王 3년(649)에는 당나라의 의관衣冠을 착용하기에 이르렀다.

### 송고승전 권4 의해2 원효전

宋高僧傳 卷4 義解2 元曉傳

어린 나이에 마음을 다잡고 불법에 들어갔는데, 스승을 죄아 학업을 전수받았지만 노닐던 곳은 일정치 않았다. 힘써 뜻을 천착하였으며 거칠 것 없이 글을 지었다. 씩씩하고 군세계 나아갈 뿐 먼저 물러성이 없었다. 삼학을 연마하여 두루 통하였으며 그 나라에 서는 만인을 대적할 만하다고 하였다. 오묘한 이치를 깨달아 신의 경지에 이른 것이 이와 같았다.

일찍이 의상義湘 법사와 더불어 당나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장玄奘이 이룩한 삼장三藏의 자혜로운 세계(불교)를 사모하였기 때문이다.

唐新羅國黃龍寺沙門元曉傳  
大宋左衛大壽寺通慧大師賜紫贊堂奉勅  
釋元曉姓薛氏東海湘州人也壯歲之年竟然入汰  
隨師望慕遊處無恒勇毅義闡雄橫文陣允化然粗  
坦然進無前却蓋三學之資通彼上謂之萬人之敵  
精義入神爲若此也嘗與湘法師入唐慕榮三藏慈  
恩之門屢緣既差息心遊住無何發言任悖示跡乘  
蹤同居士入酒肆倡家若誌公持金刀鐵錫或製疏  
以講雜華或撫琴以樂祠宇或閑閣寓宿或山水坐  
揮任意隨機都無定檢時國王置百座仁王經大會  
偏授碩德本州以名望舉進之諸德惡其爲人譖王

## 삼장법사 서유로정기

三藏法師 西遊路程記

종이에 채색紙本彩色

35.3×647.7cm

조선 1652년

동도사성보박물관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장玄奘(602~664)이 쓴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의 일부 내용을 간주려 그림과 글로 남긴 것이다. 「대당서역기」는 그가 인도 여행을 하면서 거쳐 간 138 나라의 지리, 산천, 성읍, 풍습, 불교 등에 관해 상세하게 적은 일종의 지리서이다. 현장은 629년 당나라의 허가나 지원 없이 인도를 향해 출발하여 타클리마칸 사막을 지나 드디어 633년 인도에 도착하였다. 이후 불교 성지를 돌아보고 당나라를 떠난 지 16년만인 645년 귀국길에 오른다. 그는 인도에서 당으로 돌아갈 때 520질 657부에 달하는 불교 경전을 가져왔는데, 귀국 후 번역 사업에 매진하여 76부 1,347권을 번역하였다. 그는 유식학唯識學에 바탕을 둔 중국 법상종法相宗의 개조開祖이기도 하다.



釋氏源流 玄奘取經

23.0×16.0cm

조선 1673년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석씨원류 釋氏源流』 권3에 수록되어 있는 현장에 대한 내용이다.

# 玄奘取經

高僧傳云大唐沙門玄奘法師慨大法之不通懶釋教之抑泰  
以貞觀三年吊影單身西尋聖迹初從京邑漸達沙州獨陝冷  
塞伊吾高昌備經危難值高昌王為給貨貢傳送突厥漸至肅  
賓多諸虎豹不能前行奘不知為計乃閉門而坐至夕開門見  
一老僧奘即禮拜僧口授般若心經令奘誦之遂得山川平易  
道路開通虎豹歲形麁思潛跡遂至佛國具觀佛化取諸經像  
東歸于闐凡經一百五十餘國備歷艱辛至貞觀十九年冬方  
達京師勅令玉華寺住翻譯經論總一千三百三十卷有懷欣  
悅詔召門人有緣並集告曰有為之法必歸唐滅蒼彫形質何  
得久停於經論有疑者今可速問聞者驚異師曰此事自知遠  
往諱佛及諸衆僧半遺喪乾右脇累足右手支頭左手陞上堅  
不動氣絕神逝經兩月色貌如常乃葬於白鹿山之原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2년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真德王 2年

김부식金富軾

30.8×20.2cm

조선 후기 금속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

이천尹濱 김춘추金春秋와 그의 아들 문왕文王를 보내 당나라에 조공하였다. 태종太宗이 광록경光榜額 유형柳額을 보내 교외에서 그를 맞이하여 위로하였다. 이윽고 (궁성에) 다다르자 춘추의 융모가 영특하고 능통함을 보고 후하게 대우하였다. 춘추가 국학에 가서 석전釋奠과 강론講論을 칭찬하기를 청하니 태종이 이를 허락하였다.

아울러 자기가 직접 지은 은탕비濯湯碑와 진사비晉書碑 그리고 새로 편찬한 진서晉書를 내려 주었다. 어느 날 (춘추를) 불러 사사로이 만나 글과 비단을 매우 후하게 주며 물었다. “경은 무슨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가?” 춘추가 끌어안아 아뢰었다. ‘신의 나라는 바다 모퉁이에 치우쳐 있으면서도 천자의 조정을 섬긴지 이미 여러 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강하고 교활하여 군사를 크게 일으켜 깊숙이 처들어와 수십 개 성을 쳐서 함락시켜 조희할 길을 막았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당나라 군사를 빌려주어 흉악한 것을 절라 입애하지 않는다면 저희 나라 사람은 모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산 넘고 바다 건너 행하는 조공마저 다시는 비랄 수 없을 것입니다.’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3년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真德王 3年

김부식金富軾

30.8×20.2cm

조선 후기 금속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

3년 봄 정월에 비로소 중국의 의관을 칙용하였다.

命小國又何敢焉太宗然之遣伊食金春秋及其子文王朝唐太宗遺光樣卿柳亨郊勞之既至見春秋儀表英偉厚待之春秋請諸國學觀釋奠及講論太宗許之仍賜御璽溫湯及晉祠碑并新撰晉書當召燕見賜以金帛尤厚聞曰卿有所懷乎春秋跪奏曰臣之本國僻在海隅伏事天朝積有歲年而百濟強猾屢肆侵凌嘆往年大舉深入攻陷數十城以塞朝宗之路若陛下不借天兵剪除凶惡則散邑人民盡為所燔則揚帆遠職無復望矣太宗深然之許以出

師春秋又請改其童服以從中華制於是內出珍服賜春秋及其從者招授春秋為特進文王為左武衛將軍選國詔合三品已上無錢之優禮甚備春秋奏曰臣有七子願使不離聖明術乃命其子文注與大監遇高句麗邊兵春秋從者溫君解高冠大衣坐於船上遇兵見以為春秋挺拔之春秋乘小船至國王聞之嗟痛追贈君解為大阿食優賞其子孫  
三年春正月始服中朝衣冠秋八月百濟將軍

## 원효는 몇 살에, 어디에서 깨달음을 얻었을까?

원효의 깨달음을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다. 「송고승전」「의상전」에 따르면, 무덤 속에서 잠을 잔 후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며, 「종경록宗鏡錄」이나 「임간록林間錄」에 따르면, 해골에 담겨진 썩은 물을 먹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깨달은 내용은 모두 일치하는데 바로 “三界唯心 萬法唯識, 이 세상은 오직 마음먹기 나름이요, 모든 법은 인식하기 나름이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효는 몇 살에 깨달음을 얻었을까? 깨달음을 얻었다는 신라 바닷가는 어디일까? 보통 661년, 마흔 네 살에 깨달음을 얻었으며, 신라에서 당나라로 가는 바닷길의 시발점인 당항성黨項城 근처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이 과연 맞을까?

「삼국유사」「전후소장사리」에 인용되어 있는 부석사 본비에는 원효가 영휘永徽 원년(650) 의상과 중국으로 가고자 고구려에 이르렀으나 어려움이 생겨 되돌아왔다고 전한다. 「삼국유사」「의상전교」조에도 고구려 국경수비대에 간첩으로 오인 받아 구금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의상의 두 번째 유학에 대해서는 부석사 본비와 「의상전교」조가 각각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부석사 본비에 따르면 의상은 661년에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의상전교」조에 따르면, 영휘 초 즉 650년에 의상은 당나라 사신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배편을 타고 우선 중국의 양주揚州에 닿았다고 한다. 이 두 기록 모두에 원효와 함께 갔다는 이야기는 없다. 그런데 「송고승전」에 원효와 의상이 함께 배로 중국에 가고자 했다는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이는 아마도 영휘 초(650)에 의상이 중국 사신의 배를 엎어 타고 중국으로 갔다는 「삼국유사」「의상전교」조의 기록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원효와 의상은 육로가 막히자 곧바로 바닷길로 가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원효가 중국으로 떠나고자 했던 항구는 당항성일 것으로 여겨진다. 당항성은 김춘추 일행이 648년 당나라로 갈 때 사용하던 항구였다. 당항성은 현재 경기도 京畿道 화성시 華城市 남양동 南陽洞 일대인데, 현재는 간척사업으로 포구의 흔적은 찾기 어렵다.

그리면, 깨달음을 얻은 곳은 어디일까? 진성여왕眞聖女王 4년(890)에 세워진 신라의 고승 원량선사圓朗禪師의 비석인 「월광사月光寺 원량선사대보선광탑비 圓朗禪師大寶禪光塔碑」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대통은 직산에 이르러 우거하며 3개월간 선정을 닦았는데 곧 신승 원효가 성도한 곳이다. 大通…抵穢山寓□□□乃神僧元曉成道之所也 習定三月”라고 하여 직산穢山이 원효가 성도成道한 곳이라고 밝히고 있다. 직산은 현재 충청남도 忠淸南道 천안시 天安市에 속한 곳이다.

월광사 원랑선사 대보선광탑비

月光寺 圓朗禪師大寶禪光塔碑

높이 226.0cm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360호



宗錄 卷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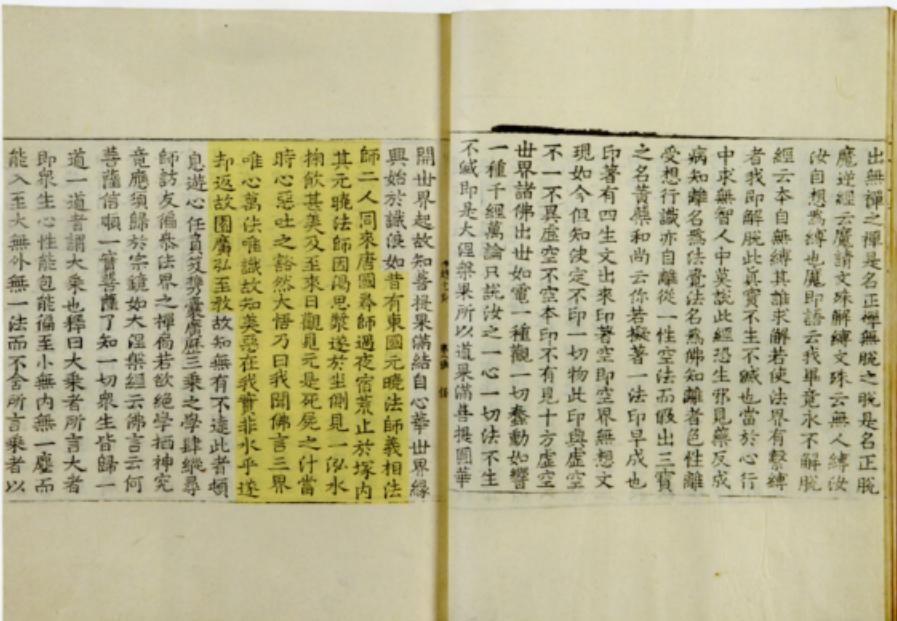
연수延壽

41.0×29.6cm

1963년 인출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종경록宗鏡錄』은 당나라의 연수延壽(904~975)가 지은 책으로, 권11에 원효의 깨달음에 대한 설화를 소개하였다. 그 내용은 「송고승전」과는 달리, 원효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로 귀신의 출현을 대신하여 썩은 물로 표현하였다.



出無禪之禪是名正禪無脫之脫是名正脫  
魔逆經云魔請文殊解縛文殊云無人縛故  
汝自想為縛也魔即語云我畢竟永不不解脫  
經云本自無縛其誰求解若使法界有繫縛  
者我即解脫此真實不生不滅也當於心行  
中求無智人中莫說此經恐生邪見無反成  
病知離名為法覺法名為佛知離者色性離  
受想行識亦自離從一性空法而假出三寶  
之名黃華和尚云你若擬著一法印早成也  
印著有四生文出來印菩提即空界無想丈  
現如今但知決定不印一切物此印與虛空  
不一不異虛空不空奉印不有見十方虛空  
世界諸佛出世如電一種觀一切蠢動如響  
一種千經萬論只說汝之一心一切法不生  
不滅即是大涅槃果所以道果備具提圓華

옛적 동국東國의 원효법사元曉法師와 의상법사義湘法師 두 분이 함께 스승을 찾아 당나라로 왔다가 밤이 되어 힘때한 무덤 속에서 잤다. 원효법사가 깊증으로 물 생각이 났는데, 마침 그의 옆에 고여 있는 물이 있어 손으로 물어 마셨는데, 맛이 좋았다.

다음 날 보니 그것은 시체가 썩은 물이었다. 그때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을 토할 것 같았는데, 활연히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내 듣건대, 부처님께서는 삼계유심三界唯心이요, 만법유식萬法唯識이라 하셨다. 그러나 아름다움과 나쁜 것이 나에게 있고, 진실로 물에 있지 않음을 알겠구나”라고 말하며, 고향으로 돌아가 두루 교화하였다.

林間錄 卷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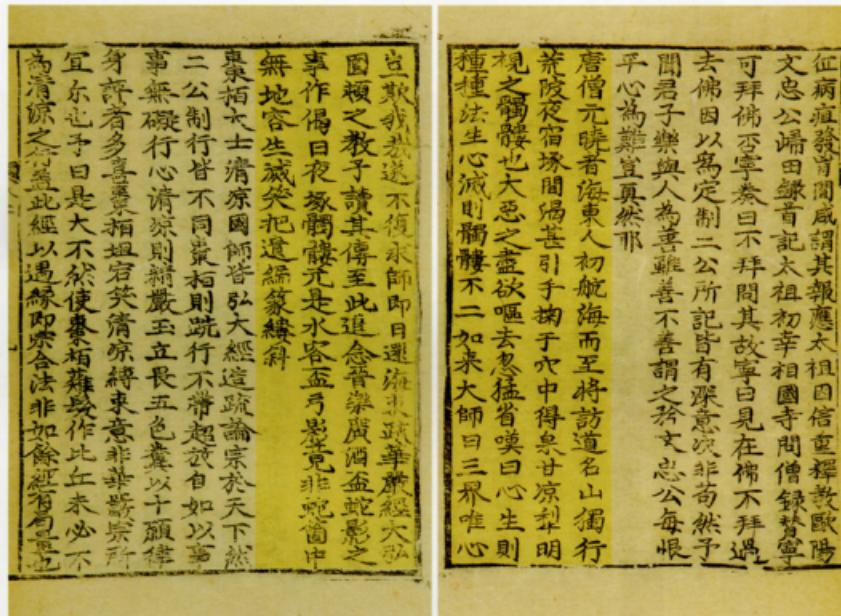
예홍慧洪

37.2×26.2cm

1960년 인증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임간록林間錄』은 송나라의 각법혜홍覺範慧洪(1071~1128)이 지은 것인데, 여기에 그 유명한 해골물 이야기가 등장한다. 『송고승전』에 비해 110여 년 뒤에 간행된 것이기는 하나, 원효를 쓰면서 혜홍은 여러 전기 자료를 참조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 역시 당시 중국에 널리 퍼져있던 원효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효는 해동인 海東人이다. … 홀로 황폐한 언덕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 무덤 사이에서 자게 되었다. 심한 길증으로 굴 중의 생물을 손으로 움켜 마셨는데 달고 시원하였다. 날이 밝아서 보니 그것은 해골이었다. 매우 역해 모두 토할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크게 깨우치고 탄식하며 말했다. …

指月錄 卷7

구여직반집 潤汝櫻盤談

28.2×17.7cm

중국 1872년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지월록指月錄』은 명나라의 구여직반집 潤汝櫻盤談이 1602년에 쓴 책이다. 과거 칠불부터 송나라의 대혜大慧에 이르기까지 선승을 기술하고 있는데, 권7에 원효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다. 그 내용은 해골물을 마셨다는『임간록林間錄』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명나라 때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재생산되었던 이유는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극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 아닐까?



後見其僧曰不可得後有人舉問一僧若被免著時  
如何抵擬他湖山代云彼  
見答也

昔有官人作無鬼論中夜揮毫次忽見一鬼出云汝道  
無我聾五祖法云老僧當時若見鬼曰  
手作勢喝嘴同伊道俗風懶以

昔有古德一日不赴堂侍者請赴堂德曰我今日在莊  
上喫油糍餃也侍者曰和尚不曾出入德曰汝去問

莊王者方出門忽見莊主來謝和尚到莊智山果身  
走李洪平謝法云一字入公門九牛長不出  
頭古指爲南泉事倉元列於鷺湖子草中

昔有外道問一入定僧云輸王衆生種非佛非羅漢不受  
後有身是甚麼義僧便入定以問彌勒却出定述  
猶動語答云譬如今師延頃成器

唐僧元曉者海東人初航海而至將訪道於名山獨行  
荒陂夜宿塚間渴甚引手掬於穴中得泉甘涼黎明  
視之髑髏也大惡之盡欲嚙去忽猛省大嘆曰心生  
則種種法生心滅則髑髏不二如來大師曰三界唯  
心豈欺我哉遂不復求師還海東疏華嚴經參開教  
僧曰是汝愚陋居於山中學體呼曰和尚者虎玄沙見者  
透悟之尚安步如常日心外無火火外無音音外無言言外  
無由免火火至而底無陽有音早丁住山境此謂火可透  
心亦可透亦常公利未見更覺之餘惟曰住山境久聞歸宗全  
日乃見一僧有沙門像曰你應我庵曰應吾聞我近服  
門若有所西推心滿意之用要透観事入就出就事理之周以治物  
又有西推心滿意之用要透観事入就出就事理之周以治物

唐修雅法師聽誦法華經歌山色沉沉松烟霏霏空林  
之下鑿趺之石石上有僧結跏橫錫誦白蓮經從旦

華嚴懺悔會玄記 卷20 海東元曉

보서 韓珠

28,3×18,6cm

조선 1695년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화엄현담회현기華嚴懶談會玄記』는 원나라의 승려 보석菩瑞가 지은 것으로 당나라 승려 정관澄觀(738~839)이 지은 『화엄수소연의초華嚴疏隨疏演義抄』의 주석서이다. 여기에도 역시 원효의 깨달음을 대해서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송고승전」 「의상전」과 거의 유사하다. 이 밖에 『신수과분유학승전修科分六學僧傳』, 『고승적요高僧摘要』, 『금강삼昧경통종金剛三昧經通宗記』의 원효 기록을 역시 「송고승전」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此經成虎海忍辱事今持刀裂使者脣脛而內于中用臘紙牋以榮博之其脣如故龍王可令大聖安者銓次織造請于御史道疏釋天子曰汝無妄報能令海西而遇入船廝逐登歸因王聞歡喜乃召大聖安者祐次焉大安不測之人也形服發異每在市齋爭銅鈸吟言大安大安之聲故號之也安曰速將付元曉講得餘人則否時曉在淄州謂使者曰此經以始本二覺爲宗爲我備角乘將按凡在兩角之間置其筆硯始故於牛車上造紙云五公卷又略略三卷於黃龍寺載演王臣道俗雲曉法

酒肆倡家志士公持金刀鐵劍或乘駕以跨雖車或  
撫琴以崇祠宇或間寓宿或山水坐亭任意忘緣  
都無定蹕時國王置百座譜仁王福報種德本州其  
以名望承之諸德甚為人尊王不納木業時王  
大臣求委方座王發使泛洋海唐虞禹貢俱有坐視  
人穴心求安方座王發使泛洋海唐虞禹貢俱有坐視  
見一翁由波羅山登舟遞使入見龍王名於海謂  
使者曰汝國夫人是帝青弟女也我宮中先有金  
剛三昧經今託伏夫人之病爲塔上蘇欲用此經被  
國流布於是特三十來紙重資敬經付使者復曰

言無過四賢首弟子者涅槃疏云學在之後名第  
傳從師生者云釋迦牟尼少而秀異辟  
有枝林般若波羅蜜寶杖於淨城禪室嚴宗法戒於  
神隸我幾深達法義號上首門人也有勸無墮內  
外誣通聖嚴一宗尤成精博等○疏四者初心善惡  
者彼論具云四者初發菩提心者三種空亂記  
菩薩一有法斷滅時得涅槃一以空爲有三難色  
等法別更有空皆大空如來歲修行等跡二謂小乘  
等者彼以不變爲一分諸緣不變爲具分生空爲半

室乃宣吐有愧解紛可則復啞言曰昔日休百種特  
難不煩會今朝橫一株處唯我獨能時諸名德備顏  
慚色消脣機悔每初跡不殊難知化人不定或擲堅  
而救柔以堅比疾或敗處現形或六方告誠立  
益渡諒公之倫也标玄記文法師造是圓滿立  
四教等言四端詳記經者即四諭體也各一卷等  
餘小乘經生空理者也○號大同天台等前二  
依天台義通而小異其但別開者以天台以華嚴  
別今曉公以華嚴總名為滿卽想是圓滿義也其梵  
網名一乘分是曉公新故云同也○疏非謂此

## 깨달음을 얻은 원효는 무엇을 결심하였을까?

원효는 깨달음을 얻은 후 무엇을 하고자 하였을까?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을 길은 없다. 그러나 「송고승전」에서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중국 유학을 그만 두고 경주로 돌아온 원효는 '미친 소리를 하고, 어그러진 행동을 보이며, 거사와 함께 주막이나 기생집에도 들어가고 자공誌公과 같이 금빛 칼과 쇠지팡이를 지니기도 했으며, 주석서를 써서 「화엄경華嚴經」을 강의하기도 하고, 혹은 서당에서 거문고를 타면서 즐기고, 여염집에서 유숙하기도 하고, 산수에서 좌선하는 등 계기를 따라 마음대로 하여 일정한 규범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승려僧侶의 계율戒律에 얹매이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류 모델은 누구였을까? 원효가 중국 유학길에 올랐을 무렵 보덕普德에게 「열반경涅槃經」과 「유마경維摩經」을 배우게 된다. 의상과 함께 배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어찌면 고구려를 거쳐 육로로 당나라에 가는 과정에서 고구려에 있던 보덕을 만났을 것이다.

무덤 속에서 원효가 '마음 하기 나름이다'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가장 먼저 유마거사를 떠올렸을 것이다. 「유마경」의 주인공 유마거사維摩居士는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불교의 정법正法를 지향한 인물이었다. 번뇌煩惱를 끊지 않고 열반涅槃에 든 유마거사야말로 '마음'을 가장 잘 다스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원효 역시 그러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였던 것은 아닐까?

### 송고승전 권4 의래2 원효전

宋高僧傳 卷4 義解2 元曉傳

천녕贊寧

40.5x30.5cm

1960년대 인출 목판본

삼성출판부박물관

그 인연이 이미 어그러지자 마음 닿는 대로 가서 노닐었다. 얼마 안 되어 미친 소리를 하고, 거칠고 벗나간 행동을 하였으며, 거사들과 함께 술집이나 기생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마치 자공誌公 스님이 칼과 쇠지팡이를 차고 다닌는 것 같았다.

혹은 소疏를 지어 「화엄경華嚴經」을 강론하기도 하고, 혹은 거문고를 뜯으며 시당에서 음악을 즐기기도 하였다. 혹은 여염집에 들어가 자기도 하고 혹은 산수山水 속에서 좌선을 하기도 하였는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니 도무지 일정한 규범이 없었다.

唐新羅國黃龍寺沙門元曉傳  
大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賛金奉勅  
擇元曉姓薛氏東海湘州人也北縣之年惠然入法  
隨師禦業遊處無恒勇擊義闡雄橫文陣俠化粗  
桓然進無前却盡三學之資通彼上謂之萬人之敵  
精義入神爲若此也嘗與湘法師入唐慕號三藏慈  
恩之門厥緣既差恩心遊往無何發言任情不跡乖  
蹊間居士入酒肆倡家若誌公持金刀鐵錫或製疏  
以譏雜華或撫琴以樂祠宇或閑闊寓宿或山水坐  
擇任意隨機都無定檢時國王置百座仁王經大會  
偏授碩德本州以名望舉進之諸德惡其爲人諧王

### 유마거사

維摩居士像

높이 96.0cm

통일신라 8세기

경주 석굴암

유마거사維摩居士는 대승불교 초기에 나온 『유마경維摩經』의 주인공인데, 출가하지 않고 거사의 모습으로 대중을 교화한 인물이다. 특히 그가 아팠을 때 문병 온 문수보살文殊菩薩에게 “중생衆生의 병, 탐욕이 남아 있는 한 내 병도 계속 될 것입니다. 만일 중생이 병들지 않는다면 내 병도 곧 나을 것입니다.”고 한 것에서 그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 원효와 요석공주와의 사랑, 그리고 파계

사람들은 원효하면, 요석공주瑤石公主와의 사랑 이야기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송고승전」이나 「서당화상비」 같은 원효의 전기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다. 오직 「삼국유사」「원효불기」에서, 그것도 일연이 인용한 「향전」에만 나오는 내용일 뿐이다.

「향전」에 따르면, 깨달음 후 저자기리를 떠돌던 원효는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준다면, 내 하늘을 떠받들 기둥을 베어오란만”이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 이 노래를 들은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은 자루 없는 도끼가 과부를 뜻하고, 하늘을 떠받들 기둥은 임금을 보좌할 현인賢人을 의미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자신의 딸이자 과부였던 요석공주를 엮어주려 하였다. 태종무열왕은 요석궁의 관리에게 원효를 데려오라 하였다. 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원효는 남산에서 내리와 요석궁 앞 문 천교蚊川橋를 건너다 요석궁의 관리를 만나자 물에 빠졌고, 그 관리는 물에 흠뻑 젖은 원효를 요석궁으로 인도하였다. 원효는 그 곳에서 요석공주를 만났으며, 공주는 임신하여 설총薛聰을 낳았다고 한다.

여기서 문천교는 통일신라시대 월정교月精橋를 세우기 전에 있던 다리며, 요석궁은 고려시대 학원學院이 있던 곳이라고 하는데, 그 곳에는 아직도 향교가 자리 잡고 있다.

승려로서 계율을 어긴 원효에게 변뇌는 없었을까? 원효는 「대승육정참회大乘六情懺悔」라는 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자신이 남녀의 상相을 지어 오래도록 고해苦海에 빠졌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 도 변뇌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깨우침을 얻은 원효는 이내 그 승려의 굴레, 속세의 굴레에 매이지 않는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된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에 열광하는 걸까? 이는 신분이 낮은 원효가 과부라지만 진골인 요석공주와 결합한 것에서 오는 성취감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태종무열왕의 승인이 전제되어야 한다. 태종무열왕은 요석공주와 원효의 결합으로 정치권력과 당대 최고의 사상가의 결합을 의도하지는 않았을까?

원효와 요석공주를 떠올리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아들 설총이다. 설총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태종무열왕 때 탄생하여 신문왕神文王 때(681~692)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다. 흔히 이두吏孺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고, 신문왕에게 『화왕계花王戒』를 지어 바친 것 외에는 자료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단편적인 기록으로 보아 그의 나이 60세 정도였을 때 벼슬이 할아버지와 같은 나마奈麻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 현종顯宗 13년(1022) 유학 밭전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홍유후弘儒侯’로 추증되었다. 조선 명종明宗 때(1544~1567)에는 김유신金庾信(595~673)을 기리는 사당을 경주 선도산仙桃山에 세우면서 최치원崔致遠과 함께 설총도 배향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 버리

자, 나중에 중창하면서 서악서원西岳書院이라고 하였다. 원효와 관련된 설총의 일화가 몇 가지 전하는데, 원효가 입적한 협사穴寺가 설총의 집 가까이에 있었다고 한다. 또 설총이 입적한 원효의 유골을 빙아 소상塑像을 만들어 분황사芬皇寺에 모셨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설중업薛仲業(?~?)은 설총의 아들이자 원효의 손자인데, 혜공왕惠恭王 15년(779) 일본 사절단에 대판관大判官의 임무를 띠고 참여하였을 때 일본의 재상으로부터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을 지은 원효의 손자라는 이유로 환대받았다고 한다. 이후 설중업은 원효의 행적을 정리하고 다듬어 『서당화상비』를 건립하였다.

#### 경주향교

慶州鄉校



三國遺事 卷4 義解5 元曉不羈

일연—然

33.0×20.3cm

조선 초 14세기 말

법어사성보박물관

보물 제419-3호



(어느 날 대사가 일찍이 삼례常例에서 벗어나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기를, “누가 차루빠진 도끼를 하악하려는가? 나는 하늘을 받침 기둥을 다튬고자 한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그 뜻을 알지 못했는데) 이때 태종大宗이 노래를 듣고서 말하기를, “이 스님께서 이미도 귀부인을 얻어 훌륭한 아들을 낳고 싶은 모양이다. 나라에 큰 한인이 있으면 그보다 더한 이로움이 없을 것이다”고 하였다.

당시 요석공隆石窟지금의 학원學院이 이곳이다에 출로 사는 공주가 있어 궁의 관리를 시켜 원효를 찾아서 맞이들에게 하였다. 궁의 관리가 죄명을 반들어 그를 찾으려고 하는데, 대사는 벌써 남산南山에서 내리와 문전교蚊川(사전교川)이나, 세간에서는 연전蝶川 또는 문전蝶川이라고 하고, 또 다리 이름을 유교鷺橋라고 한다를 지나고 있어 만나게 되었다. 그는 일부러 물속에 빠져 옷을 작섰다. 관리는 대사를 궁으로 인도하여 옷을 벗어 밀리게 하니, 이 때문에 (그곳에서) 묵게 되었다. 공주가 과연 임신하여 성종顯慶을 낳았다.

설종 표준영정

薛聽 標準影幀

권오창權五昌

종이에 채색墨本彩色

117.0×91.0cm

1992년

국립현대미술관

弘  
儒  
集  
陳  
櫟  
像



權五昌畫

三國史記 卷46 列傳6 設聰

김부식金富植

30.8×20.2cm

조선 후기 금속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

설총薛聰은 태종무일왕太宗武烈王 때(654~660) 원효, 요석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다. 선문왕神文王 때(681~692)부터 본격적으로 관직에 나갔던 것으로 이거지며, 그 직위는 할아버지와 같은 나마奈麻였다. 명문장가로 알려져 있는 설총에 대한 기록은 안타깝게도 거의 남아 있지 않은데, 다만 「삼국사기」에 왕에게 지어 바친 「화왕계花王戒」가 전해지고 있다.

설총을 이두吏讀의 창제자로 보는 견해가 고려 말부터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그가 활동하기 이전부터 이두가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설총이 집대성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 현종顯宗 13년(1022)에 흥유후弘祐侯에 추봉되어, 문묘文廟에 배향되었으며, 이 밖에도 그를 기리는 사원으로 경주 서악서원西岳書院이 있다.

薛聰字聰智祖談捺奈麻父元曉初為崇門淹  
該佛書既而返本自號小性居士聰性明銳生  
知道待以方言讀九經訓導後生至今學者宗  
之又能屬文而世無傳者但今南地或有聰所  
製碑銘文字缺落不可讀竟不知其何如也神  
文大王以仲夏之月處高明之室顧謂聰曰今  
日宿雨初歇薰風微涼雖有珍饌哀音不如高  
談善謠以舒伊鬱吾子必有異聞盍為我陳之  
聰曰唯臣聞昔花王之始來也植之以香園護  
之以翠幕當三春而發艷凌百花而獨出於是

自運及遐艷之靈夭夭之英無不奔走上謁  
唯恐不及忽有一佳人朱顏玉齒鮮粧靚服伶  
俜而來縛約而前曰妾履雪白之沙汀對鏡清  
之海而沐春雨以去垢快清風而自適其名曰  
薔薇聞王之令德期薦枕於香帷王其客我乎  
又有一丈夫布衣韋帶戴白持杖龍鍾而步偃  
僂而來曰僕在京城之外居大道之旁下臨蒼  
茫之野景上倚嵯峨之山色其名曰白頭翁  
謂左右供給雖是膏梁以充腸茶酒以清神巾  
衍儲藏須有良藥以補氣惠石以蠲毒故曰雖

海東名臣錄 卷1

김유신金信

21.0×10.6cm

조선 후기 목판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서악지

西岳誌

정국후鄭克後

22.2×10.6cm

1907년 목판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신라 말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235명에 달하는 이름난 유학자를 기록한 책으로, 설총薛聰은 권1의 가장 처음에 등장한다.

## 원효와 신라 지배층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원효와 신라의 지배층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 원효는 요석공주瑞石公主와의 결합을 통해 당대 최고의 정치 권력자인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군사 실력가인 김유신金庾信(595~673)과 혼인을 통한 인척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원효는 661년 12월 김유신이 고구려를 공격하던 소정방蘇定方(592~667)에게 군량미를 주려 갈 때 동행하게 된다. 군량미를 전달하고 난 뒤 소정방이 보낸 난새(蠶)와 송아지(獐) 그림을 아무도 풀지 못하였는데, 원효가 '빨리 돌아가라(速還)'로 혜독하여 신라군이 신속하게 회각할 수 있게 되었다.

『송고승전』에는 왕비의 머리에 종기가 났을 때, 원효가 『금강삼매경』의 소疏를 쳐어 그 병을 낫게 하였다는 신비로운 이야기도 전한다. 이는 그만큼 원효가 당시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하겠다.



之是享是福歟訖埋聲帛於壇之圣地彌豐於大廟  
 雖文乃帶方肅督劉仁軌下按「唐史」之「足方以備  
 王及太子」云云。後漢書「送康師  
 班為肅津歸王隆則知唐帝有隙而遣之也。」  
 爾爲肅津歸王隆則知唐帝有隙而遣之也。又古記云總  
 章元年戊辰若總章戊辰明李勣之事而子文定定於  
 二年生歲矣。」唐兵志于平壤遂向通書曰急輸  
 國平壤國人之所請唐兵志于平壤遂向通書曰急輸  
 軍資王會群臣問曰入於敵國至唐兵也所其勢危矣  
 所謂王師糧匱而不輸其料亦不宜也如何唐信奏曰  
 臣等能輸其軍資謂大王無慮於是唐信仁明等奉敕  
 万人入句鑿境輸耗二萬斛乃還王大喜又欲與唐會  
 唐兵度信先道然起安川等一人問其會期唐曰蘇定  
 方紙畫鷺鷥二物圓之國人未解其意使問於元曉法  
 師解之曰連還其兵謂畫鷺鷥二物也於是唐信圓  
 軍欲侵浪江今日後侵者斬之軍士爭毫發而脣兵  
 來據殺其未免者翌日信返追句鑿兵捕殺數分級百  
 濟古記云扶餘城北角有大岩下臨江水相傳云義慈  
 但宮人之間死義慈卒於唐史有明文 又新羅古  
 傳云宋方既討高麗二國又謀伐新羅而留連於是度  
 信知其謀廢唐兵幅之皆死坑之今尚州界有唐橋焉

(김유선, 김인문 등이 군사 수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지경을 넘어서 군량 2만 국을 수송해 주고 돌아오니 웡이 크게 기뻐했다. 또 군사를 일으켜 당군과 합세하려고 유신이 먼저 연기 변천 두 사람을 보내어 두 나라가 합세할 기밀을 물었다. 당나라 칭강 소장방이 종이에 난새와 송이지를 그려 보내 주었으나 신라군에서는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없어 사람을 보내어 원효법사에게 물었다. 원효는 그 그림을 해석하여 말하기를 「군사를 속히 회군하라는 말이오. 송이지와 난새를 그린 것은 두개의 반절을 이르는 것입니다.」

## 원효는 환속 이후 무엇을 하였을까?

요식공주와의 사랑으로 계율을 범한 원효는 본격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후 결심했던 유마거사의 길, 즉 대중 교화의 길을 가게 된다. 원효는 승리를 의미하는 검은 옷을 벗어던지고 속인俗人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춰 소성거사小性居士라 일컬었다고 한다. 「삼국유사」「원효불기」에는 원효가 우연히 광대가 춤출 때 쓰는 박을 얻어 도구를 만들고 '무에無碍'라 이름 지은 노래와 춤으로 민중을 교화하여 중생들이 부처의 이름을 알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생들이 모두 '나무雨無'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무에'라는 말은 「화엄경」의 일승사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일체의 걸림이 없는 사람은 한 걸로 생사를 벗어난다(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에서 온 것이다. 한편 원효가 푸줏간이나 술집에 드나들며 자유자재로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은 「화엄경」「십지품」에서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사용한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을 볼 때 원효는 「화엄경」을 대중 교화의 바탕으로 삼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원효는 무엇으로 중생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바로 정토신앙淨土信仰이다. 그런데 그는 죽어서 아미타극락정토에 가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중생이 본래의 마음을 깨닫아 이 땅에 정토가 구현되기를 바랐다.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귀로 경전의 이름을 듣고, 입으로 부처님 이름을 외우는 것' 뿐이다. 이로써 삼국시대 널리 유행하였던 미륵신앙을 제치고 600년대 후반 들어서는 아미타정토신앙이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기죽」이 새겨진 아미타불

己丑銘阿彌陀佛碑像

높이 57.0cm

통일신라 689년

국립경주박물관

보물 제367호



충청남도 연기군 비암사碑巖寺에서 발견된 3구의 불비상佛碑像 가운데 하나이다. 비석의 뒷면에 '기죽년己丑年 2월 15일 7 세부모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三國遺事 卷4 義解5 元曉不羈

일연—然

33.0×20.3cm

조선 초 14세기 말

병어사성보박물관

보물 제419-3호

원효가 이미 계를 잊고 설총을 낳은 뒤로 속인의 웃으로 바꾸어 입고 스스로 소성거사小性居士라고 하였다. 무언히 관내들이 춤출 때 쓰는 큰 백을 얹었는데 그 모양이 괴이하였다. 그 모양대로 도구를 만들며 「화엄경華嚴經」의 「일체에 걸림 없는 삶은 한길로 생사를 벗어난다.」는 구절을 따서 무에無碍라 이름 지었으며,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천촌만락千村萬落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돌아다녔으며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호를 알게 되었고, 모두 「나무나무」를 칭하게 되었으니 원효의 고화가 커던 것이다.

## 파학집

破闖集

이인로李仁老

32.3×20.0cm

조선 1659년 목판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옛날 원효대성은 백정, 술장수 등과 어울렸다. 일찍이 목이 굽은 호리병을 매만지며 저자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었는데, 그것을 무어라고 이름하였다.

그 후에 어떤 호사가 호리병 위쪽에 쇠방울을 달고 아래쪽에 채색 비단을 늘어뜨리는 것으로 장식을 심고는 가볍게 두드리며 나아갔다. 물러섰다 하는데 모두 음절이 맞았다. 이에 경전의 계승을 따라 무애가無碍歌라 이름하였다. 심지어는 농사꾼들도 그것을 흉내내어 놀이로 삼았다.



保亦見其號指讚體若秋輝頑如夏雲其可以從人其廣可以容物不見室於密石勿見焚於焚爐以之歲世莊叟以之泛江湖熟為之名小性居士號為佳芬皇帝某華嚴院寺布四十迦陀羅尼力施第又嘗因訣分纏繩百捨故皆謂偈陽初地矣自龍之説永謁於路工攝三昧詠詠置筆硯於牛之肉角上因謂之角無亦表本始二覺之後言也大安師師拂衣而結歟亦知音唱和也旣入寂聽碎道體猶直家本答皇坐以表歡喜殊失之志歌詩多擅懷楚迴顧全無顛矣

如今始覺空門味滿院無人識姓名  
白學士光臣掌賓籍及解錦新勝諸生共設春庭祝  
棋使謁學士於玉荀亭設小飲以一絕示之書由來  
素自天不因祈禱更延年醉臘臘有奇譽知是義誠  
研微  
昔元曉大聖混迹屠沽中嘗拂疏曲項消嚴舞於市  
名之曰無等是後好事者鑄金錄於上並飭弟於下以  
為飾樹擊並選害中音節追摘取經論偶頭號曰佛學  
歌至於田翁亦效之以為戲無無智國學題云此物久  
將無用當嘗人選以不名召近有山人貫休作偈云揮  
雙袖所斷二牒三乘處所以越三界皆以真理比之

## 원효의 죽음과 그의 사후는 어떠했을까?

일흔 살이 된 원효, 혈사穴寺에 거주하던 원효는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했을 음력 3월 30일 자신의 죽음을 여섯 곳에 알리고서 결국 입적入寂한다. 입적의 순간, 태어남, 출가하기까지의 고뇌, 출가의 설렘, 고난의 중국 유학길과 깨달음, 요식공주와의 사랑, 그리고 중생제도가 머리 속에서 한 순간에 스쳐지나갔을 것이다. 그는 웃었을 것이다. 참 치열했던 삶을 살았지만, 보람된 삶이었다고…

그렇다면 이름만 알려진 혈사는 어디에 있는 절일까? 혈사 근처에 자신의 아들인 설총의 집이 있었단다. 설총이 신문왕 때 관직에 진출하였기 때문에 혈사의 위치가 신라 왕경인 경주 인근일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원효가 혈사에서 입적한 뒤 절의 서쪽 봉우리에 임시로 감실龕室을 마련하였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말 탄 무리가 해골을 가져가려 하였다고 한다. 말 탄 무리는 석가모니 佛頂涅槃 후 그의 사리 술리를 차지하려는 여덟 왕과 닮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설총은 유해를 모서다가 다비茶毘한 뒤 유골을 부숴 소상塑像을 조성하고 분황사芬皇寺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 삼국유사 권4 의해5 원효불기

三國遺事 卷4 義解5 元曉不羈

일연一然

33.0×20.3cm

조선 초 14세기 말

법어사성보박물관

보물 제410-3호



이미 입적해서 설총이 유해를 부수어 진옹眞容을 빚어 분황사에 봉안하고, 공경 사모하여 자극한 슬픔의 뜻을 표하였다.

설총이 그때 옆에서 절을 하자 소상塑像이 문득 돌아보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돌아본 채로 있다. 원효가 일찍이 살던 혈사穴寺 옆에 설총의 집터가 있다고 한다.



# 원효元曉의 생애生涯와 신라新羅 사회社會

김 상 현 동국대학교

## 수행과 깨달음

원효(617~686)는 삼국간의 전쟁과 통일이 있었던 격변의 7세기에 살았다. 원효의 성은 설薛씨, 할아버지는 임피공仍皮公, 아버지는 담내談棕였다. 암랑군(지금의 경산)의 불등을촌佛等村에 살았던 아버지의 관동은 11위인 나마奈麻였다. 어머니는 유성流星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임신했으며, 출산 때에는 오색구름이 주위를 덮었다고 한다. 원효는 진평왕 39년(617)에 밤나무 밑에서 태어났는데, 『삼국유사』에는 원효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담내의 집은 밤나무골 서남쪽에 있었다. 어머니가 만삭이 되어 마침 이 골짜기 밤나무 아래를 지나다가 출연히 분만하고 창황 중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우선 남편의 옷을 나무에 걸어놓고 그 가운데를 자리로 하였는데, 그 나무를 사라수娑羅樹라고 했다.

오색구름이 주위를 덮은 나무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원효의 탄생은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아래에서 태어난 분다의 탄생과 비슷하다. 혼날 불등을촌은 불지촌佛地村으로, 밤나무는 사라수娑羅樹로 불렸는데, 이는 원효의 탄생을 분다의 출현에 비견하여 붙인 이름들이다.

원효의 어릴 때 이름은 서당贊幢이었다. 원효는 청소년 시절을 진평왕대(579~631)의 말기에 보냈는데, 젊은 날에 관한 기록은 전하는 것이 없고, 다만 15세쯤에 출가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원효는 낭지朗智, 보덕普德, 혜공惠空 등으로부터 배운 바 있다. 의상義相은 원효의 도반道伴이었는데, 8년이나 후배였고, 출신도 성격도 수행 방법도 전공 분야도 달랐지만, 이들은 진정으로 친했다. 원효의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에는 젊은 날 수행에 몰두하던 구도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삼국유사 三國遺事 원효불기 元曉不羈



제석사 帝釋寺

경상북도 경주시 자연면에 있는 절인데,  
이곳은 원효가 태어난 사리사터라고 전한다.

좋은 음식으로 길려도 이 몸은 무너질 것이고, 부드러운 옷으로 보호해도 목숨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 수행이 없는 빈 몸은 길려도 이익이 없고, 덧없는 목숨은 아끼도 보전하지 못한다. …… 백년이 짧았는데 어찌 배우지 아니하며, 일생이 얼마나 닦지 않고 방종하랴. …… 사대四大는 흘어지니 내일 살기 기약 없고, 오늘은 이미 저녁, 아침부터 서둘리아 하리로다. …… 응상대덕龍象大德이기를 바란다면 긴 세월 고통을 참아야 하고, 사자좌에 앓기를 기약한다면 육심과 향락 영영 던져야 하리.

허망한 몸을 살찌우면서 세월을 허송할 일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 수행에 부지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 글을 통해서 정진으로 보냈을 젊은 날의 원효를 그려볼 수 있다.

650년(진덕여왕 4년), 34세의 원효는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 신라를 떠난 원효와 의상은 멀리 고구려와 당나라의 국경인 요동에 이르렀는데, 변방의 순라군에게 정탐자로 오해되어 수십 일 동안 갇혀 있다가 간신히 신라로 돌아왔다. 현장玄奘이 주도하고 있던 장안長安의 새로운 불교학풍을 접하고자 떠났던 구도의 먼 길, 그 길에서 원효는 뜻하지 않은 시련과 좌절을 맛보았던 것이다. 그 후 10년 세월, 원효에 관한 기록은 또 침묵하고 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전반에 이르는 10년간이 그에게 황금같이 소중한 시절이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진덕여왕과 무열왕의 치세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참혹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던 풍진 세월이었다. 이 시절에도 원효는 원願이라는 갑옷을 입고 수행과 학문에 정진하고 있었다.

원효는 44세이던 문무왕 원년(661년)에 두 번째로 도당유학에 도전했다. 물론 이 때도 의상과 함께였다. 그런데 원효는 남양만이 멀지 않은 직산의 어느 옛 무덤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연수延壽의 『종경록宗鏡錄』(961년)에 전하는 원효의 오도悟道 설화는 다음과 같다.

원효법사와 의상법사는 밤이 되어 황폐한 무덤 속에서 잤다. 원효법사가 갈증으로 물 생각이 났는데, 마침 그의 곁에 고여 있는 물이 있어 손으로 움켜 마셨는데, 맛이 좋았다. 다음날 보니, 그것은 시체가 썩은 물이었다. 그때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을 토할 것 같았는데, 활연히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내 듣건대, 부처님께서는 삼계유심三界唯心이요 만법유식萬法唯識이라고 하셨다. 그러기에 아름다움과 나쁜 것이 나에게 있고, 진실로 물에 있지 않음을 알겠구나.”

마침내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두루 교화했다.



발심수행장 發心修行章



십문화쟁론 十門和諍論

지난밤에는 해골이 나뒹구는 물을 단순히 샘물로 알고 맛있게 마셨지만, 날이 밝은 다음 날 간밤에 마셨던 그 물이 시체가 썩은 물임을 알고서는 토할 만큼이나 역겨웠다는 것이다. 결국 원효가 마셨던 그 물은 어두운 밤이나 환한 아침에도 변한 것은 없었다. 변한 것은 원효 자신의 마음이었고 인식이었다.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사投射했을 뿐이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신적 내용을 대상에 전이轉移하여 그 자신의 정신적 내용이 마치 그 대상에 속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각각 현상이 곧 투사다. 시체가 썩은 물을 보고 구토했던 것도 그 물은 더럽다고 생각하던 자신의 선입관을 투사한 것이지 그 물은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원효는 알았다. 물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에 의해 그 물이 좋게도 나쁘게도 인식되었을 뿐임을. 이렇게 원효는 엣무덤 속에서 오랜 꿈을 깼다.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오랜 꿈으로부터 활연히 깨어난 것' 이었고, '낭연대오朗然大悟' 한 것 이었다.

### 환속한 소성거사

원효는 40세 전후에 요석공주瑤石公主를 만났고, 이를 계기로 환속還俗했다. 『삼국유사』에는 요석공주와의 인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원효는 어느 날 성례에서 벗어나 거리에서 노래를 불렀다.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허락하려나, 내 하늘 받침 기둥을 다듬고자 하노니.” 사람들은 아무도 그 노래의 의미를 몰랐는데, 태종이 이 노래를 듣고 말했다. “아마도 이 스님이 귀부인을 얻어서 훌륭한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구나. 나라에 대현大賢이 있으면 그보다 더한 이로움이 없을 것이다.” 당시 요석궁瑤石宮에는 과부공주가 있었다. 왕은 궁리宮吏를 시켜 원효를 찾아 요석궁으로 맞아들이게 했다. 궁리가 칙명을 받아들여 원효를 찾고 있을 때 그가 남산으로부터 내려와 문천교蚊川橋를 지나다가 만나게 되었다. 원효는 일부러 물에 빠져 옷을 적시었다. 궁리가 원효를 요석궁으로 인도하여 옷을 말리게 하니,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공주는 과연 아이를 배고 설총薛璽을 낳았다.

이 기록에 의하면, 원효는 무열왕(654~660) 때에 요석공주를 만난 셈인데, 그의 나이 37세에서 43세에 해당하는 시기다. 원효와 요석공주와의 만남은 세속을 떠났던 그가 다시 세속의 거리로 돌아오는 강렬한 몸짓이었다. 그가 “출세법出世法은 세간법世間法을 치유하는 법이고, 출출세법出世法은 출세법을 치료하는 법이다”라고 한 『섭대승론攝大乘論』의 구절에 주목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세간뿐만 아니라 출세간에도 문제는 있다.

출세법으로부터 다시 한 번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에는 출가와 재가의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이 경의 “비록 출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재가에 머무르지 않는 다”는 구절에 대해 원효는 도속이변道俗二邊의 상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출가와 재가, 혹은 도속道俗 두 가지 모습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원효의 이 말은 세간과 출세간, 세속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 성聖과 속俗 그 어느 쪽에 치우쳐도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는 공주를 만나 설총을 낳은 뒤에 스스로 승복을 벗고 환속還俗하여 소성거사小性居士라고 자신을 낮추었다. 그가 거사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해서 불교를 떠난 것은 아니었다. 더 열심히 교학에 정진했고, 더욱 자유롭게 교학활동을 펼쳤다. 그가 환속했다고 해서 세속에서만 살았던 것도 아니고, 대중교학에만 전념했던 것도 아니다. 그의 학문 연구는 만년까지 계속되었고, 절에서 머문 적이 많았다. 55세에 행명사行名寺에서 『판비양론判比量論』을 저술했고, 분황사에서는 『화엄경소華嚴經疏』를 지었으며, 황룡사에서 『금강삼매경』을 강의하기도 했고, 고향의 옛집에 지었던 초개사初開寺에서 현풍玄風을 드날렸고, 그리고 혈사穴寺에서 입적했다.

원효는 당시 신라 사회에 두루 영향을 미쳤다. 승려 엄장嚴莊이 그에게 도를 구함에 생관법鉢觀法를 만들어 지도했던 이야기며, 문무왕 2년(662)에 군사에 관한 암호문서의 의미를 해석해 줌으로써 김유신이 이끌던 신라군을 위기로부터 구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이야기며, 사복蛇福과 함께 돌아가신 사복의 어머니를 장사지낸 이야기며, 심한 종기를 앓아 고생하면 왕비를 위해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을 짓고 이를 황룡사에서 강의했던 이야기 등은 원효가 당시 신라 사회의 큰 의원 같은 존재였음을 알려주고 있다.『송고승전』에는 원효가 황룡사에서 행한 강경講經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강경의 날이 되어 왕과 신하, 그리고 도속道俗 등 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법당을 가득 예워싼 속에서 원효의 강론이 시작되었다. 그의 강론에는 위풍이 있었고, 논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었다. 그를 친양하는 박수소리가 법당을 가득 메웠다. 원효는 다시 말했다. “자난날 백 개의 서까래를 구할 때에는 내 비록 참여하지 못했지만, 오늘 아침 대들보를 가로지름에 당해서는 오직 나만이 가능하구나.” 이때 모든 명성 있는 승려들이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며 가슴 깊이 참회했다.

일찍이 국왕이 개최한 백고좌회百高座會에 원효는 참여하지 못한 일이 있

었다. 즉 원효의 고향에서는 명망이 높아서 그를 천거했지만, 여러 승려들이 그 사람됨을 미워하여 참소하매 왕이 그를 참석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황룡사에서 강석講席을 끝낸 원효가 백고좌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백 명의 고승을 배 개의 서까래로 격하시키고, 하나의 대들보를 올려놓을 때는 오직 자신만이 가능하다고 뽑내고 있다. 결국 원효는 당시 신라 불교계를 대표하는 대들보였다는 점이 의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원효가 신라사회에서 '만인萬人의 적敵'으로 불렸다는 사실과도 같은 맥락이다.

### 만인지적萬人之敵으로 불린 학승

원효의 여러 모습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가 뛰어난 학승學僧이었다는 사실이다. 서당화상비문贊輒和尚碑文에 의하면, 그는 일체의 도리를 모두 다 통달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은밀하고 미묘한 이치를 연구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송고승전』에는 저자 학승으로서의 원효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기도 했다.

원효는 진리의 성을 용감하게 공격하고, 문진文陣에서 종횡무진 당당히 분투해서, 나이 갈 뿐 물러서는 일이 없었다. 삼학三學에 두루 통하여 그 나라에서는 '만인지적萬人之敵'이라고 했다. 도리에 정통하고 입신入神의 경지에 도달함이 이와 같았다.

신라에서 원효를 '만인지적'이라고 했다는 것은 주목된다. 혼자서 수많은 적군과 대항할 만한 지혜와 용기를 갖춘 위대한 장수를 '만인의 적'이라고 부른다. 학승으로서의 원효를 전쟁터의 위대한 장수에 비견하여 그가 진리의 성을 용감하게 공격하고 문단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한다고 한 평가는 유의해야 마땅하다. 의천義天은 "원효성사 오른쪽에 가는 선철先哲은 없다"고 하면서, "오직 용수龍樹와 마명馬鳴 만이 원효에 짹할 수 있다"고 했다. 원효의 교학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정당하다. 원효의 교학과 사상은 한국불교사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불교사에도 우뚝 솟은 봉우리이기 때문이다.

원효의 교학에는 중국의 불교계나 혹은 유학을 다녀왔던 승려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유학승들의 대부분은 어떤 종파나 전공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이는 종파적 성격이 강한 중국불교의 영향이기도 했다. 그러나 원효의 학문적 관심은 어느 한 분야에 머물지 않았다. 원효는 100여 부 240여 권에 이르는 저



화엄종조사회전 奉藍宗祖師繪傳  
황룡사에서 「금강상대경론」을 강설하는 원효

서를 남겼다. 한국불교사에서 원효를 높가하는 저술가는 찾기 어렵다. 신라의 의직義寂이 25부, 경홍懶興이 40여 부, 태현太賢이 50여 부의 저술을 남겼지만 원효에 비할 바 못된다. 중국의 학승도 원효를 따르지 못했다. 지의智顥는 30여 부, 법장法藏은 50여 부, 백본소주百本疏主로 불리는 규기窺基의 경우도 50여 부의 저술을 남겼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원효의 많은 저서는 그 대부분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및 일본에 전해져 높게 평가되고 많은 영향을 주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원효의『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을 본 사람들은 모두 훌륭하다고 했고, 번역되어 인도에까지 유포되었다.『금강삼매경론』은 신라는 물론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도 찬양받았던 저서다.『기신논소起信論疏』와『화엄경소華嚴經疏』는 법장을 비롯한 당나라 화엄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저서다. 만일『능가경楞伽經』을 강의하려면 원효의 소에 의지해야한다고 의천은 평했고, 또 그는 원효소에 의하여『금강경』을 강의하기도 했다. 일본에 전해진 원효의 많은 저서가 오랜 세월 일본에 유통되면서 끼친 영향 또한 많았다. 그러나 원효의 그 많은 저서 중에서 현재 완본으로 전하는 것은 13종에 지나지 않는다. 곧,『대혜도경종요』,『법화경종요』,『열반종요』,『미륵상생경종요』,『무량수경종요』,『아미타경소』,『보살계본지법요기』,『금강삼매경론』,『대승기신론별기』,『대승기신론소』,『이장의』,『대승육정참회』,『발심수행장』등이다. 이 밖에도 잔본殘本으로 전하는『화엄경소』,『본업경소』,『판비량론』등을 합하면 20여종의 저서가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오고 있다.

### 무애행無碍行과 대중 교화

일연—然은 원효를 불기不羈의 자유인으로 인식했다. 불기란 굴레가 없다는 뜻이고, 매인 곳이 없다는 의미다.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효는 해방자였고 자유인이었다. 불교로부터도, 승려라는 형색으로부터도, 지식으로부터도, 명예로부터도, 계율로부터도, 그는 언제나 자유로웠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본다는 말씀했다.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초월하게 되며, 초월함으로써 해방되는 것이다.” 불교도들이 행하는 주된 노력은 모든 조직화로부터의 해방 또는 해탈인데,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실천했던 이가 원효다. 그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이론적으로 규명하여『이장장二障章』을 남겼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이를 구현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그의

무애행無碍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원효는 일정한 범위나 틀 속에 안주하기를 거부했다. 그가 ‘유방외遊方外’, ‘초출방외超出方外’ 등의 표현을 즐겨 썼던 것도, 무애의 자유인으로 행동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일체무애인一切無碍人 일도출생사一道出生死” 원효는 『화엄경』의 이 계송을 주목했고, 이로부터 무애無碍라는 용어를 취하여, 무애의 춤을 추었다. 걸림 없이 행동하는 원효의 모습을 『송고승전』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그의 발언은 미친 듯 난폭하고, 예의에 어긋났으며, 행동은 상식의 선을 넘었다. 거사와 함께 주막이나 기생집에도 들어가고, 자공誌公과 같이 금빛 칼과 쇠 지팡이를 가지기도 했고, 혹은 주석서를 써서 『화엄경』을 강의하기도 하고, 혹은 사당에서 거문고를 타면서 즐기고, 혹은 여염집에서 유숙하고, 혹은 산수에서 좌선하는 등 계기를 따라 마음대로 하여 일정한 규범이 없었다.

원효는 시중 잡배들과도 어울렸고, 노래하고 춤추며 천촌만락을 다니며 대중을 교화했다. 원효의 대중교화는 그의 학문적 성과나 사상적 깊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황랑하고 거친 세상이라는 들판에서 삶에 지친 사람들의 묵정발을 일구고 가꾸는 일이란 보살행菩薩行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원효가 만난 사람은 다양하다. 밭가는 노인과 산골의 봉메한 사람, 그리고 광대, 백정, 술장사 등 시중잡배들과도 어울렸다. 원효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성이 있음을 믿었고, 비록 지금은 번뇌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의 경우도 그 번뇌의 구를 걷힐 날 있음을 알았다. “나는 그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대들은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기에.” 『법화경』의 이 구절을 원효는 주목한 바 있다. 골품제 사회에서의 이와 같은 발언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원효는 “날개 작은 새는 산기슭에 의지하여 형을 기르고, 작은 고기는 여울물에 엎드려 본성을 편안히 한다”고 했다. 이처럼 그는 소승적인 범부의 삶 또한 소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효는 대중의 교화를 위해서 무애가無碍歌와 미타징성가彌陀證性歌 등의 노래를 지어 불렀다. 그는 어느 날 광대들이 특이한 모양의 조롱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다. 그도 조롱박 모양의 도구를 만들어 무애라고 이름하고는 이를 두드리며 춤추면서 천촌만락千村萬落을 누볐다. 그리하여 거리의 아이들이나 부인들까지도 원효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 불교사적 위상

원효의 일생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밤을 지새우는 학문 생활로, 거리를 누비는 교화의 길로, 686년(신문왕 6) 3월 30일, 원효는 70년의 빛나는 생애를 혈사에서 마감했다. 삼국간의 전쟁도 끝나고 당나라 군사를 물리쳐 낸지도 10년이 지나 평화의 기운이 온 강토에 감돌던 때, 구룡丘龍은 역사의 강으로 조용히 사라져 갔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았다. 원효의 교학은 신라의 경홍懶興, 도륜道倫, 현용玄隆, 태현太賢, 견등見登, 표원表員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 분황사, 고선사, 흥륜사 등에는 원효의 소상塑像이 봉안되어 있었다. 분황사의 상은 설총이 조성해 모신 것이었고, 고선사의 것은 거사居士 모습의 상이었다. 고선사에 원효의 행적을 기리는 서당화상비가 세워진 것은 9세기 초였고, 성도한 곳인 직산의 옛 무덤은 9세기 중엽에 기념할 만한 유적지로 인식되었으며, 10세기 초에는 원효가 머물렀던 향성산 내의 한 절터도 성적聖跡으로 주목을 받았다. 신라에서는 원효를 구룡대사丘龍大師, 진나후신陳那後身, 만인지적萬人之敵 등으로 존칭하기도 했다.

고려 숙종 5년(1101)에는 국가에서 원효를 동방의 성인이라고 하면서 화쟁국사和諍國師의 호를 추증하고 분황사에 비를 세우도록 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흔히 원효를 대성大聖, 성사聖師, 허성曉聖 등으로 존칭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원효의 명성과 영향은 지속되었다. 당나라에 왔던 진나陳那의 문도들에 의해 원효의『십문화쟁론』이 번역되어 천축에까지 전해졌다.『금강삼매경론』은 당나라에서 소疏가 논論으로 존칭되었고,『화엄경소』는 당나라 화엄학승들의 주목을 받았으며,『기신론소』는 해동 소海東疏로 불리기도 했다.

일본 불교에 끼친 원효의 영향은 8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8세기 일본에서 서사書寫된 원효의 저서는 47종이 확인되지만, 원효의 거의 모든 저서가 일본에 전해져 유포되었을 것임은 여러 학승의 저술에 인용된 원효의 저술로도 짐작된다. 12~13세기경 일본에는 원효의 전기류인『원효화상연기元曉和上緣起』와『원효사초元曉事抄』가 유통되고 있었는데,『원효사초』는 원효보살이라는 존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흔히 원효를 구룡丘龍, 혹은 구룡대사丘龍大師로 존칭하기도 했는데, 구룡은 청구青丘의 용이라는 의미였다. 고산사高山寺의 묘에明惠(1173~1232)는 원효와 의상을 매우 흡모하여 이 절에 원효와 의상의 영정을 봉안했고, 이 무렵에 원효와 의상의 생애를 그림으로 그린『화엄연기華嚴緣起』6권은 현재 일본의 국보이다

# 원효元曉와 관련된 사찰寺刹

진정환 국립경주박물관

원효는 '스승을 따라 배우되, 일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는 대중교화를 위해 바람처럼 이리 저리를 떠돌았을 것이다. 그만큼 원효가 거쳐 갔던 절은 많았을 것이다.『서당화상비』,『삼국유사』,『송고승전』등에 언급된 원효 관련 절을 살펴보면 사라사婆羅寺, 초개사初開寺, 분황사芬皇寺, 고선사高仙寺, 혈사穴寺, 황룡사皇龍寺, 향사사恒沙寺, 반고사磻高寺, 낙산사洛山寺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원효가『판비량론』을 썼다는 행명사行名寺도 머물렀던 사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전국 사찰 가운데에는 원효가 창건하였거나 증창하였다고 하는 절이 대략 80여 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어느 절은 고려시대 문인들이 기행하고 남긴 시문에 원효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기도 하지만, 원효가 창건하였다는 이야기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절도 있다.

이제 원효가 머물렀던 절은 과연 어떤 곳인지, 그곳에는 원효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원효 창건 연기緣起가 남아 있는 사찰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삼성산 三聖山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산으로 원효, 설총, 일연 등이 태어난 곳이라고 전한다.



제석사 帝釋寺

경상북도 경주시 자연면에 있는 절인데, 이곳은 원효가 태어난 시라사터라고 전한다.

## 원효가 머물렀던 사찰

『삼국유사』『원효불기』조에 따르면, 원효는 자기가 태어난 나무 아래에 사라사를 짓고, 자기가 출가한 곳을 초개사라 하였다고 한다. 경산시 자연면에 가면 그가 태어났다고 하는 곳에 세워진 제석사帝釋寺가 있다. 그러나 이 절에는 원효를 추억할만한 당시의 유산은 남아있지 않다. 어찌면 이 두 절은 이미 성인화가 이루어진 뒤 경산지역에서 유포된 이야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성시는 출가하자 그 집을 내놓아 절로 삼고, 이름을 초개사라 했다. 나무 곁에도 절을 세우고 사라사라 하였다.『삼국유사』「원효불기」

『송고승전』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원효는 여러 스승을 찾아 나섰음을 다른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효는 반고사에 머물면서 낭지朗智를 찾아뵙고 『초장관문初章觀文』과 『안신사심론安身四心論』을 지었다고 한다.『삼국유사』에 이 반고사가 있던 산의 동쪽에 태화강太和江이 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굴화리 뒤편에 위치한 영축산靈鷲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영축산 천전리 암각화 맞은 편에는 신라의 폐사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반고사터일 것으로 추정된다.<sup>9</sup>

원효는 반고사에 있을 때 언제나 낭지를 찾아 가서 뵙고는 『초장관문』과 『안신사심론』을 저술하였다.『삼국유사』「낭지승운朗智乘雲」

이 산의 남쪽인 청량면 율리 마을에는 영축사터靈鷲寺址가 있다. 여기에는 통일신라시대 초기 석탑 부재가 2기가 남아 있는데, 낭지가 머물던 곳은 아닐까?<sup>2</sup>

원효, 그리고 그에게 가르침을 준 스승과 연관된 절은 바로 포항시 오천읍 항사리에 있는 오어사梧魚寺이다. 이 절은 원래 항사사恒沙寺였다고 한다. 원효는 여러 불경의 소疏를 짓는데, 언제나 항사사에 머물던 혜공惠空에게 물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절의 이름이 항사사에서 오어사로 바뀐 내력이 재미있는데, 하루는 혜공과 원효가 시내에서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고 돌 위에 대변을 보았는데, 혜공이 그것을 가리키며 “너는 뜰을 누고, 나는 고기를 누었다汝屎吾魚”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현재 오어사에는 원효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이 곳에서 원효가 저술 활동을 하였다고 전한다. 이와 더불어 오어사에는 원효가 사용하였다고 하는 삿갓과 청동숟가락 등이 전하는데, 실제 원효가 썼던 것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때 원효는 여러 불경의 소疏를 짓고 있었는데, 언제나 혜공에게 질의하고 혹은 서로 희롱했다. 하루는 혜공과 원효가 시내를 따라가며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고 돌 위에 대변을 보았는데, 혜공이 그것을 가리키며 농담을 하는 것이었다. “너는 뜰을 누고 나는 고기를 누었다” 이말에 따라 절 이름을 오어사라 하였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원효대사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삼국유사』「이혜동진그惠同進」



반고사터 備高寺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전리 암각화 건너편에 있는 절터로 원효가 머물던 반고사터로 추정된다.



영축사터 靈鷲寺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율리에 있는 절터인데, 낭지郎智가 주식했던 곳으로 여겨진다.

현재 통일신라 석탑 부재 2기가 남아 있다.



오어사 梧魚寺

경상북도 포항시 오천읍에 있는 절로 원래는 항사사였다. 오어사라는 시명은 혜공惠空과 원효의 일화에서 유래하였다.

9) 남동신, 『영원한 새벽 원효』(1999), 새누리, 108~109쪽.

2) 위의 책 109~110쪽.

원효와 황룡사와의 관계는 「송고승전」「원효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송고승전」에서는 원효를 황룡사의 승려라 하였으나, 황룡사에서 「금강삼매경론」을 강설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송고승전」에 따르면, 원효는 황룡사에서 열리는 백좌인왕경대회百座仁王經大會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후에 왕비가 병에 들었을 때 「금강삼매경론」의 소를 황룡사에서 강설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볼 것이 바로 「송고승전」에 언급하고 있는 백좌인왕경대회이다. 흔히 백좌회百座會라고도 하는데, 백 명의 법사를 모아 「인왕경仁王經」을 강설하는 불교 행사이다. 「인왕경」의 「국토가 혼란하고 파괴되며 불타려 하거나 적들이 와서 나라를 파괴할 때, 100구의 불상과 100구의 보살상과 100구의 나한상을 청해서 100명의 비구와 사부대중과 칠중이 함께 듣는다.」라는 말에서 나온 법회이다. 호국경護國經이라 불린 「인왕경」을 강설하는 백고좌회는 당시 황룡사의 성격과 위상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황룡사에서 백고좌회가 개최된 때는 진평왕眞平王 35년(613) 7월과 선덕여왕善德女王 5년(636) 3월이다. 원효가 뽑히지 않은 백좌인왕경대회가 선덕여왕 5년(636)에 있었던 백고좌회, 이때는 원효가 스물 되던 해로 불가佛家에 든 지 5~6년 정도 지났을 때로 고향에 머물던 원효는 수행이 뛰어나기는 했으나, 경주의 고승에게는 한없이 부족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을 강설한 때가 과연 언제인지는 현재 남아 있는 자료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남아 있는 저술의 인용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문무왕 때일 것으로 추정된다.

5년(636) 3월 원이 병에 걸렸는데, 의사의 기도로는 효험이 없자, 황룡사에 백고좌회를 베풀고 승려들을 모아 「인왕경」을 강경하고 100명이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삼국사기』 권5 선덕왕 5년

원효 하면 떠오르는 절은, 분황사이다. 선덕여왕 3년(634)에 창건된 분황사는 원효가 승려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에 조성된 곳이다. 「삼국유사」「원효불기」에는 「일찍이 분황사에 살면서 「화엄경소」를 지었는데, 제4권 「십회향품」에 이르러 그만 그쳤다.」라는 기록이지만 남아 있다. 「서당화상비」에 따르면, 원효가 죽자 설총이 유골을 갈아 소상塑像을 만들었는데, 그 상을 분황사에 모셨다고 한다. 원효의 소상을 입적한 혈사나 혈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주석하던 고선사가 아니라, 분황사에 모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원효의 생애에서 분황사에서 보내온 시간이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효가 분황사에 머물던 때의 불교미술품 가운데 오늘까지 남아 있는 것은 분황사 모전석탑이다. 이 석탑 안에서는 사리갓춤이 나오기도 하였다. 원효는 아마도 이 탑을 돌



자장율사 진영 茲奘律師 真影

비단에 채색刺繡彩色

147.5×96.5cm

조선 1804년

통도사성보박물관

며 중생 구제를 서원하였을 것이다.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은 분황사에 들러 원효를 추모하는 「제분황사효성문祭芬皇寺曉聖文」을 짓기도 하였다. 그는 특히 자신의 형인 숙종肅宗(재위 1095~1205)에게 건의하여 원효를 화쟁국사和靜國師로 추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고려 명종明宗 때(1171~1197)에는 한문준韓文俊(?~1190)이 글을 짓고 최선禪詫(?~1209)이 글씨를 쓴 「화쟁국사비」가 분황사에 세워졌다. 현재 비신은 없어졌는데 비문 일부의 탑본이 「금석청완金石淸玩」 등에 남아 있다. 그러나 비좌는 분황사에 남아 있는데, 조선 후기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1786~1856)가 분황사에 들렀다가 이 비좌에 「此和靜國師之碑跋金正喜題記」라는 각서刻書를 남기기도 하였다. 여기서 「화쟁국사和靜國師」라고 새긴 것은 「화쟁국사和靜國師」를 오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낙산사는 의상이 당나라에서 돌아와 관음보살의 진신이 해변의 굴 속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 곳을 낙산이라 이른 것에서 유래한다.

하루는 원효가 관음보살을 뵈리았는데, 관음보살觀音菩薩의 화신化身을 알 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원효가 낙산사를 방문한 시기는 의상의 귀국 시기를 고려해볼 때 671년 이후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관음보살의 화신인 파랑새가 앉았다는 관음송觀音松과 원효가 떠 마셨다는 냉천冷泉이다. 관음송은 고려 말 정주鄭州가 낙산사를 방문하였을 때까지만 해도 있었음을 그의 냉천이라는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세간에 전하기를 관음보살이 여인으로 화해서 벼를 베고 있었는데, 원효가 냉천물을 마시면서 함께 익살스러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고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중요한 고적古跡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원효에 비해 의상의 법력이 높았음을 드러내기 위해 윤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효가 만년을 보낸 곳은 고선사이다. 「서당화상비」에 따르면, 혈사에 들어가기 전에 고선사에 머물던 원효가 신통력으로 당나라 성선사聖善寺의 불을 켰다. 고선사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는 「삼국유사」「사복불언」조에 실려 있는데, 원효가 고선사에 머물 때 사복과 함께 사복의 어머니를 장사 지내는 이야기이다.

고선사는 원효의 손자인 설중업이 「서당화상비」를 세운 곳이기도 하다. 이와 아울러 원효의 소상을 봉안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서당화상비」나 원효소상은 대각국사나 일연의 기록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각국사의



황룡사터 皇龍寺址

진흥왕 14년(553) 짓기 시작한 황룡사는 진흥왕 30년(569) 가량이 1차 완공되었고, 진흥왕 35년(574)에는 금당의 본존불인 금동장륵존상을 선덕여왕 15년(646)에는 9층목탑을 완공하였다. 선덕여왕 재위 시에는 인왕경을 강설하는 백고좌회가 황룡사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분황사 芬皇寺

분황사는 선덕여왕 3년(634) 창건되었다. 이 절에서 원효는 「화엄경소」를 저술하였으며, 일적 후에는 소상이 봉안되기도 하였다. 고려 영종 때에는 화쟁국사비가 건립되기도 하였다.



분황사 모전석탑 芬皇寺 模塼石塔

높이 9.3m 신라 634년 경주시 구황동 분황사 국보 제30호 원효가 분황사에 머물던 때에도 사찰을 지었던 탑이다.



고선사 삼층석탑 高仙寺 三層石塔

높이 10.2m 통일신라 686년 이전 국립경주박물관  
국보 제38호

덕동댐 건설로 고선사터가 물에 잠기면서 1975년에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졌다. 통일신라 초기 석탑  
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원효 주석 당시 고선사의 위  
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다.



고선사 귀부 高仙寺 귀부

높이 1.2m 통일신라 8세기 후반 국립경주박물관

천이나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이 그 곳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깨지거나 사라진 듯하다.

고선사는 아쉽게도 1975년 덕동댐 공사로 현재 수몰되었는데, 원효가 그 곳에 머물 때 세워었던 삼층석탑을 비롯하여 설중암이 세운 비석 받침, 즉 귀부龜趺, 건물의 주춧돌 등을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졌다.

특히 고선사 삼층석탑은 682년에 세워진 감은사지 삼층석탑과 비교해볼 수 있다. 고선사 삼층석탑이 감은사지 삼층석탑보다 좀 더 장식적이기는 하지만 두 탑은 여든 두 장의 돌이 들어간 것이나, 노반까지의 높이가 10.1m로 같다. 점으로 미루어 보아 거의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원효가 고선사에 주석할 때 조성한 탑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원효는 고선사에서 혈사로 거처를 옮긴다. 혈사는 자신의 아들인 설총의 집과 가까운 곳이었다. 원효는 결국 수공垂拱 2년(686) 3월 30일 혈사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이와 더불어 살펴볼 사찰은 행명사行名寺이다. 일본에 남아 있는『판비량론比量論』의 발문跋文에 “판비량론 1권 원효가 쓴다. 함형 2년 신미 7월 6일 행명사에서 주석하며 집필에 착수하여 마쳤다. 判比量論一卷 釋元曉述 咸亨二年歲在辛未七月十六日 住行名寺 着筆訖證”라는 기록이 있다. 이로써 원효가 55세에 행명사라는 절에서『판비량론』을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행명사가 어디인지는 알 길이 없어 아쉬울 따름이다.

### 원효 설화가 남아 있는 사찰

원효는 입적 이후 그의 방대한 저술과 신이한 행적으로 많은 이들의 흄모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1055~1101)의 재평가 이후 국사로 추증되는가 하면, 일연一然(1206~1289)은 성사로까지 추앙하였다. 그런 만큼 원효에 얹힌 이야기가 서린 사찰이 꽤 된다. 여기서는 고려시대 문인들의 시문詩文이나, 사찰의 사적기事蹟記에 주로 실려 있다.

대각국사는 평양 인근의 반룡산盤龍山 연복사延福寺에 들렀을 때, 원효와 의상이 보덕화상에게 도道를 물었다는 글을 남기고 있다. 이 글로써 원효가 보덕에게 배운 시기는 보덕이 백제로 망명하기 이전인 650년 이전임을 알 수 있다.

飛房空迹瞻南地 비래방장 빈 자취를 남쪽 땅에서 바라보며  
舊跡遺蹟禮此間 옛적 숨어 지내시던 자취를 향해 여기에서 경의를 표합니다.  
浮石芬皇曾問道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이 일찍이 도를 물으셨다는데  
慨然長想未你知還 김개무랑한 마음 길이 떠올라 돌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 권19

「도반룡산언복사보덕성사비방구지 到盤龍山延福寺普德聖師飛房舊址」

이규보李奎報(1168~1241)는 『남행월일기』에서 부령현扶寧懸(지금의 부안군)에 있는 원효방元曉房이 원효와 사포蛇包가 살던 곳이라는 이야기를 전한다. 또 다른 글에서는 그 원효방이 변산邊山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부안군 변산에는 원효암이라는 절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그러나 이규보의 『남행월일기』에 나오는 사포는 「삼국유사」 「사복불언」 조에 나오는 사복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에서는 원효보다 더 뛰어난 인물로 묘사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원효의 제자로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삼국유사」에서 사복이 고선사로 원효를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어, 과연 부안의 원효방에 얹힌 사복과 원효의 이야기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

다음 날 부령현재 이군과 다른 나그네 6~7명과 더불어 원효방에 이르렀다. …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포 성인이 옛날에 머물던 곳이라 한다. 원효가 와서 살았으므로, 사포 역시 따라와 모시고 있었다.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남행월일기』

변산을 능가산이라고도 한다. 옛날 원효가 살던 방장이 지금까지 있는데, 한 늙은 비구승이 혼자 도를 닦으면서 시중드는 사람도 솔 텅반 등 밥 짓는 도구도 없이 날마다 소래사에서 재만 올릴 뿐이다.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9 「팔월이십일제능가산원효방병서 八月二十日題榜迦山元曉房并序」

이규보는 보광사普光寺에 들렀을 때 주지에게 공덕산功德山 백련사白蓮社에 원효와 의상이 있었으며, 의상의 삯간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공덕산, 백련사는 지금 문경시 공덕산(사불산이라고도 함)에 있던 사찰이다. 그러나 그 곳에는 원효의 혼적이라 할만 한 것은 남아 있지 않다.

원효가 『송고승전』에 언급된 소반을 던져 대중을 구한 설화의 장소가 되는 사찰도 여러 곳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데, 여기서 일컫는 척반대 椅盤臺는 묘향산 척판대 椅盤臺, 경주 단석산斷石山, 부산 불광산佛光山 척판암 椅板庵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원효의 대중 교화를 극적으로

설명한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위성의 남쪽 묘향산 북쪽에 한 정사가 있으니 척반대라고 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신라 도인 원효가 이 곳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하루는 혜안으로 보니, 중원에서 큰 불사를 하는데, 이홉 번 승려가 되고 아홉 번 속인이 된 사람이 증시<sup>證師</sup>로 참여하고 있어 천벌로 땅이 함몰되게 되었다.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몰되게 되었을 때 소반 하나가 어디선가 와서 혹은 높게 혹은 낮게 도량을 지나갔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기괴하게 여겨 나았는데, 그 후에 땅이 함몰되었다. 소반이 떨어진 것을 보니 ‘해동 원효가 소반을 던져 뭍사름을 구했다’라는 글자가 있으므로 그것으로 편액을 삼았다.

보운지普雲子 희근稿謹「첨반대사작기標盤臺事記」

지금까지 원효가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있는 사찰들의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기록들은 저마다 논리적 맹점盲點을 지니고 있어 실제로 원효가 머물렀던 곳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원효의 신이神異한 행적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생제도를 위해 어디든 달려갔던 원효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거나, 절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 원효의 높은 명성에 의탁하여 지어진 이야기는 아닐까?

### 현존 원효 창건 사찰

인터넷 검색창에서 ‘원효’를 입력하면 절의 이름에 원효가 들어간 사찰이 상당함에 놀랄 것이다. 대표적인 몇 예를 살펴보자. 우선 광주 무등산 자락에 있는 원효사를 들 수 있다. 원효사는 지증왕智證王 혹은 법흥왕法興王 때 창건하고 문무왕 때 원효가 머물렀다고 전해진다. 경상남도 양산 천성산에는 원효암이 있고, 부안 변산의 원효암, 북한산 원효암, 도봉산 원효사 등도 ‘원효’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찰들이다.

‘원효’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지만 원효가 창건했거나 중창했다는 절은 전국에 걸쳐 그보다 몇 배는 더 많이 있다. 경산시 중악산 불굴사에는 원효가 수도하였다는 원효암이 있고, 경기도 한미산 흥국사 역시 661년 원효가 창건했다고 한다. 관야산 망해암 역시 원효가 세운 절이라고 하며,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는 수덕사 역시 원효가 중수하고 수도하였던 곳이라고 한다. 부안 개암사나 경주 기림사도 원효가 중수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이름이 높은 절이나 그렇지 않은 절 모두 원효와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사적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창건 시기와 원효 생존 시기가 다른 논리적 모순을 보이기도 한다.

과연 이 사찰들은 원효가 모두 창건한 것일까? 앞서 이야기 하였지만 원효를 창건주나 중창주로 끌어들인 것은 그 사찰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이들 사찰들이 대중 교화를 위해서 본보기가 되는 원효를 끌어들인 것은 아닐까?

원효의 전기 기록된 원효가 머물렀던 사찰은 태어난 곳에 지었다는 사라사나, 입적하였다는 혈사 등을 비롯하여 총 9개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법등이 이어지고 있거나 절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곳은 분황사, 향사사(오어사), 고선사, 낙산사 단 네 곳뿐이다. 사라사, 초개사, 반고사는 어렴풋이 추정하고 있으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찰들이다. 원효의 삶 가운데 중요한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행명사나 혈사는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형편이다. 원효 연구의 활성화와 더불어 원효가 머물던 사찰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원효를 창건주 혹은 중창주로 삼은 절은 전국에 걸쳐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효가 아무리 대중 교화를 위해 전국을 누볐더라도 그렇게 많은 일을 하였을까 의아할 정도이다. 분명 그 많은 절의 창건과 중창을 원효가 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원효를 끌어들였을까? 절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성사로 추앙받던 원효의 이름에 의탁한 것일 수도 있고, 원효의 대중교화를 본받고 싶어서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원효암 元曉庵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 자락에 있는 암자로, 원효가 창건했다고 한다.



원효사 元曉寺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락에 있는 사찰이다. 이곳은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절에는 원효대사 친영을 모신 전각 등이 있다.



원효를 추억하며

為利根者多文廣說  
為鈍根者少文略攝

충명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글로 광범하게 설하고

둔한 사람들에게는

적은 글로 간략히 말함이 좋다



## 원효 행적行蹟의 기록

우리 역사에서 자신의 삶이 원효 만큼 널리 알려진 사람도 드물 것이다 특히 원효가 해골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요식공주와 사랑에 빠졌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모두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명세와 달리 그의 생애를 온전히 기록한 자료는 거의 없다. 그러나 『서당화상비』和上碑, 『송고승전宋高僧傳』,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원효의 삶을 살펴볼 수 있다.

『서당화상비』는 원효가 입적한 지 120년이 지나 그의 손자 설중업薛仲業(?~?)이 세웠다. 그는 779년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원효의 『금강삼昧경론金剛三昧經論』에 감명 받은 일본의 관리로부터 환대를 받았던 일이 계기가 되어 비석을 세울 결심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중대中代 왕실에서 하대下代 왕실로 교체되는 격동에 휘말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애장왕袁莊王(재위 800~809) 때 비로소 고선사高仙寺에 비석을 세우게 된다. 이 비석은 어느 때인가 파손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1914년에 하단부 3편이, 1960년대에 상단부 일부가 발견되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원효의 대표 저술인 『십문화생론十間과 論』과 『화엄종요華嚴宗要』와 관련된 내용, 초기 수학 과정, 파격적이거나 신이한 행적, 입적한 장소와 시기, 비석 건립과 추모 사업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찬녕贊寧(919~1001)이 지은 『송고승전』『원효전』에도 원효의 행적이 실려 있으나, 『금강삼昧경론金剛三昧經』의 성립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 원효의 삶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원효가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는 『송고승전』『의상전』에 자세히 실려 있다. 『의상전』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해골 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귀신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해골 물 혹은 썩은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종경록宗鏡錄』, 『임간록林間錄』, 『지월록指月錄』 등에 실려 있다.

일연 一然(1206~1289)이 지은 『삼국유사』는 원효 기록 가운데 비교적 늦은 시기의 것이지만, 이전 기록에서 알 수 없었던 원효의 출신지와 가계, 그리고 요식공주와의 인연을 기록하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이와 더불어 원효와 낭지朗智 그리고 혜공惠空과의 인연, 엄장嚴莊을 생관법淨觀法으로 가르친 이야기, 원효와 사복蛇福 사이에 얹힌 이야기, 원효가 동해東海 낙산사洛山寺의 관음보살觀音菩薩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이야기 등도 실려 있다.

### 서당화상비

원효의 손자인 설중업薛仲業(?~?)이 애장왕袁莊王(재위 在位 800~809) 세운 비석이다. 세 조각난 비석의 아랫부분은 1914년 5월 9일 일본인이 고선사高仙寺址에서 발견되었으며, 윗부분은 1968년 경주시慶州市 동천동東川洞 민가에서 발견되었다. 비문은 33행이며, 각 행은 61자로 추정된다.

장높이 1.0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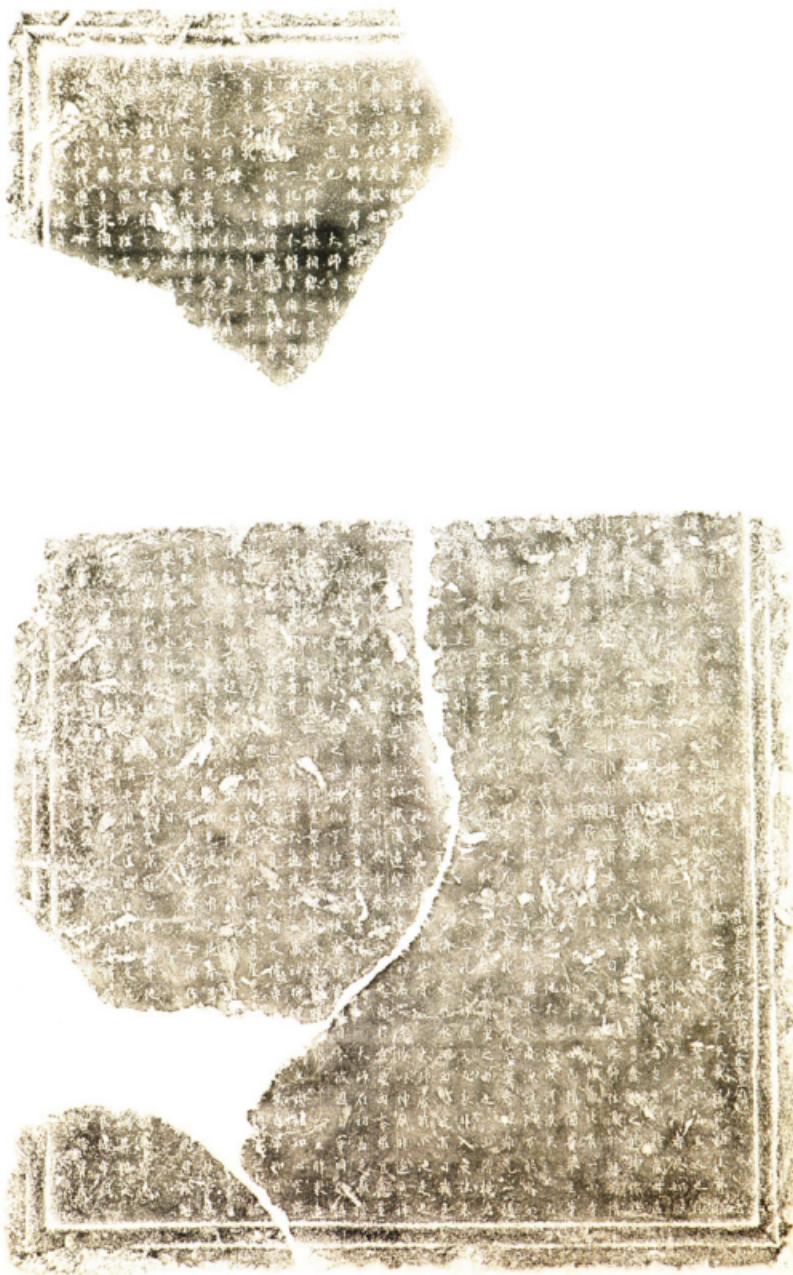
아랫부분 59.0cm 끝부분 46.0cm

동일본의 9세기 초

국립중앙박물관 동국대역교 비문관







## 송고승전 원효전

宋高僧傳 元曉傳

천금정

40.5×30.5cm

1960년대 민속 목판본

성경호반박물관

『송고승 전末高僧傳』은 송末나라의 창녕贊寧(919~1001)이 응희麻熙 4년(987)에 완성한 당唐과 오대五代 고승들의 전기이다. 이 고승전은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데, 「원효전」만은 예외이다. 그 이유는 「원효전」을 원효의 자술인 「급강삼매

唐新羅國黃龍寺沙門元曉傳

大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賛掌奉勅撰

釋元曉姓薛氏東海湘州人也昇髮之年惠然入法

隨師栗葉遊處無恒勇擊義闢雄橫文陣化然相  
相然進無前卻蓋三學之淹通彼土謂爲萬人之敵

精義入神爲若此也嘗與湘法師入唐慕奘三藏慈

恩之門厥緣既差息心遊住無何發言狂悖示跡垂

肆同居士入酒肆倡家若誌公持金刀鐵錫或製疏

以講經華或撫琴以樂祠宇或問閭寓宿或山水坐

禪任參隨機都無定檢時國王置百座仁王經大會

遍搜碩德本州以名望舉進之諸德惡其爲人謂王

不納居無何王之夫人腦嬰癱瘓醫工絕驗王及王子臣屬請諸山川靈祠無所不至有巫覡言曰苟遣人往他國求藥是疾方瘳王乃發使泛海入唐慕其醫術湛深之中忽見一翁由波濤躍出登舟歎使人入海觀宮殿嚴麗見龍王王名鈴海謂使者曰汝國夫人是青帝第三女也我宮中先有金剛三昧經乃二覺圓通示菩薩行也今託仗夫人之病爲增上緣欲附此經出彼國流布耳於是將三十米紙重沓散經付授使人復曰此經度海中恐罹魔事王令持刀製使人脣脢而內于中用蠟紙繩牒以藥傳之其腦如故龍王言可令大安聖者銓次縕縕請元曉法師

唐新羅國黃龍寺沙門元曉傳

大宋左街天壽寺通慧大師賜紫賛掌奉勅撰

釋元曉姓薛氏東海湘州人也昇髮之年惠然入法  
隨師栗葉遊處無恒勇擊義闢雄橫文陣化然相  
相然進無前卻蓋三學之淹通彼土謂爲萬人之敵  
精義入神爲若此也嘗與湘法師入唐慕奘三藏慈  
恩之門厥緣既差息心遊住無何發言狂悖示跡垂  
肆同居士入酒肆倡家若誌公持金刀鐵錫或製疏  
以講經華或撫琴以樂祠宇或問閭寓宿或山水坐  
禪任參隨機都無定檢時國王置百座仁王經大會  
遍搜碩德本州以名望舉進之諸德惡其爲人謂王  
夫人是青帝第三女也我宮中先有金剛三昧經乃  
二覺圓通示菩薩行也今託仗夫人之病爲增上緣  
欲附此經出彼國流布耳於是將三十米紙重沓散  
經付授使人復曰此經度海中恐罹魔事王令持刀  
製使人脣脢而內于中用蠟紙繩牒以藥傳之其腦  
如故龍王言可令大安聖者銓次縕縕請元曉法師

『경문金剛三昧經論』 말미에 뒷문을 세겼기 때문이다. 『송고승전』에서는 원효의 일대기보다 『금강삼대경론』의 찬술 과정이 부각되었는데, 이는 찬성이 위경師經으로 취급받던 『금강삼대경金剛三昧經』을 합법화 하는 데 관심을 쏟았기 때문이다.

造疏講釋之夫人疾愈無疑假使雪山阿伽陀藥力亦不能過是王送出海面遂登舟歸國時王聞而歡喜乃先召大安聖者黏次馬大安者不測之人也形容特異恒在市鬻擊銅鉢唱言大安大安之聲故號之也王命安安云但持經來不願入王宮闈安得經排未成八品皆合佛意安曰速持付元財講餘人則否晚受斯經正在本生湘州也謂使人曰此經以本始二覺每宗爲我備角乘持奉几在兩角之間置其筆硯始終於牛車造疏成五卷王請刻日於黃龍寺敷演時有薄徒猶盡新疏以事白王延于三日重錄成三卷號爲略疏洎乎王臣道俗雲擁法堂曉乃宣

造疏講釋之夫人疾愈無疑假使雪山阿伽陀藥力亦不能過是王送出海面遂登舟歸國時王聞而歡喜乃先召大安聖者黏次馬大安者不測之人也形容特異恒在市鬻擊銅鉢唱言大安大安之聲故號之也王命安安云但持經來不願入王宮闈安得經排未成八品皆合佛意安曰速持付元財講餘人則否晚受斯經正在本生湘州也謂使人曰此經以本始二覺每宗爲我備角乘持奉几在兩角之間置其筆硯始終於牛車造疏成五卷王請刻日於黃龍寺敷演時有薄徒猶盡新疏以事白王延于三日重錄成三卷號爲略疏洎乎王臣道俗雲擁法堂曉乃宣

吐有儀解紛可則稱揚彈指聲凜于空曠復昌言曰昔日採百樣時雖不預會今朝橫一棟處唯我獨能時諸名德俯顏慙色伏膺懺悔焉初曉示跡無恒化人不定或擲盤而杖眾或溟水而擣梵或數處現形或六方告滅亦庶諭公之倫歟其於解性覽無不明矣跡有廣略二本俱行本土略本流入中華後有翻經三藏改之為論焉 系曰海龍之官自何而有經本耶週曰經云龍王宮殿中有七寶塔諸佛所說諸深義別有七寶應滿中感之謂十二因緣總持三時等良以此經合行世間復顯大安曉公神異乃使夫人之疾為起教之大端者也 出大宋高僧傳第四卷

吐有儀解紛可則稱揚彈指聲凜于空曠復昌言曰昔日採百樣時雖不預會今朝橫一棟處唯我獨能時諸名德俯顏慙色伏膺懺悔焉初曉示跡無恒化人不定或擲盤而杖眾或溟水而擣梵或數處現形或六方告滅亦庶諭公之倫歟其於解性覽無不明矣跡有廣略二本俱行本土略本流入中華後有翻經三藏改之為論焉 系曰海龍之官自何而有經本耶週曰經云龍王宮殿中有七寶塔諸佛所說諸深義別有七寶應滿中感之謂十二因緣總持三時等良以此經合行世間復顯大安曉公神異乃使夫人之疾為起教之大端者也 出大宋高僧傳第四卷

散演時有薄徒竊盜新疏以事白王延于三日重錄成三卷號爲略疏洎乎王臣道俗雲擁法堂曉乃宣

諸深義別有七寶應滿中感之謂十二因緣總持三時諸名德俯顏慚色伏膺懺悔焉初曉示跡無恒化人不定或擲盤而杖眾或溟水而擣梵或數處現形或六方告滅亦庶諭公之倫歟其於解性覽無不明矣跡有廣略二本俱行本土略本流入中華後有翻經三藏改之為論焉 系曰海龍之官自何而有經本耶週曰經云龍王宮殿中有七寶塔諸佛所說諸深義別有七寶應滿中感之謂十二因緣總持三時等良以此經合行世間復顯大安曉公神異乃使夫人之疾為起教之大端者也 出大宋高僧傳第四卷

三國遺事 卷4 義解 元曉不羈

일연一然

3.0x20.8cm

조선 초 14세기 말 목판본

벌어사성보박물관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는 일연一然(1206~1289)이 고려 중엽왕忠烈王 7년(1281) 군위 인각사麟角寺에서 편찬한 삼국시대 역사서이다. 벌어사梵魚寺 소장『삼국유사』는 조선 초 14세기 말 경주慶州에서 간행된 것으로 현존하는 삼국유사 가운데 가장 빠른 판본이다.

『원효불기』는 원효의 전기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편찬되었지만, 인용한 자료를 분명



## 元曉不羈

元曉不羈

聖師元曉俗姓薛氏祖仍皮公亦云赤大公今赤大淵  
側有仍皮公廟父諱壽乃未初示生于押梁郡南今龜山郡

佛地村北集各聚落烟下村名佛地或作安智村等  
机徒羅樹者聖師之家本住此谷西南母既娠而月

滿過此合栗樹下忽分產而倉皇不遑歸家且以夫  
衣掛樹而寢處其中因号樹曰袈羅樹其樹之實亦異

於常至今稱袈羅栗古傳昔有主寺者給寺奴一人一

夕課栗一枚收於于官吏怪之取栗槍之一枚盈一

鉢乃歸判給一枚故因名要旨師既出家捨其宅爲寺

名初開樹之旁立舍曰袈羅院時之行狀云生京師人從

祖考也唐僧傳百平下湖州之人按懿德二年閻文武

王制上州下州之邊置及州下州今之昌寧郡  
也押梁郡本下州之屬縣也時今西州於你湖州由

佛地村父居焉三歲時乃平游於分湖也師生小名

普禮字名新號也幼好學勤學入學而有優長

將應有五色雲氣謂至王三十九年大業十三年丁

丑歲也至丙子歲歲凶不得耕種乃持天通友耕其

貧居佛寺行狀不可考載唯唐僧傳所記有一段異事

載唐僧與行狀不可真載唯唐僧傳所記有一段異事

載唐僧一日風顛唱街云誰許沒柯斧我斫支天柱人皆

하게 밝혔고 다른 사료에는 보이지 않는 원효의 삶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높다. 특히 「원효불기」조는 다른 승진佛傳에서 다루지 않은 「향견禪傳」을 인용하여 신비한 탄생설, 유헌공주와의 인연 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원효불기」조의 내용은 「삼국유사」 찬술 당시 이미 성인화壇人化 된 원효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太吟師太宗開以此種教於傳道無之子謂  
有大利。蓋當時石室皆是。而其後人多  
更置之。今生不物。得水已。猶尚山。還水於  
人。則人當知。人以過之。伴隨水。是後人更小歸於  
高。長流泉。勿捨也。主家有後土。神廟。縣主。而奉  
敬。是通之。又雖十數中一也。以之。當是是事。若以  
物。名。則謂之六。大吉。人。則求。則吉。未。不吉。號  
就。夫。或生鷗。已後。得。守。小。喜。春。二。御。得。便。人。祭  
大。數。其。歲。歲。固。不。形。制。為。是。其。歲。歲。經。一。無。  
人。一。通。出。已。也。名。自。廣。而。日。廣。而。日。不。苦。存。先。

曉雪所居大寺旁有聰寂之墟云 謂曰角樂初聞  
昧軸舞臺終掛萬街風月明隱石春眠去門掩亦惺惺  
龍空迴顧至今

卷之三

卷之三

曉嘗所居穴寺旁有聽家之墟云謂曰角棄初聞三昧軸舞壘終掛萬街風月明瑤石春眼去門掩芬皇顧影空廻顧至

皆誦佛陀之號或作南無之稱曉之化大矣哉其生緣  
千萬落且歎且舞化諦而歸使桑福會羅刹之輩  
村名佛寺寺名初闢自稱元曉者蓋初釋佛日之意  
爾元曉亦是方言也當時人皆以鄉言稱之始且也會  
住芬蕪寺纂華嚴疏至第四十廻向品終乃絕筆又嘗  
因詮分觴於百松故皆謂位階地矣亦因海龍之請  
承詔於路上撰三昧經疏著筆破於牛之兩角上因謂  
之角業亦表本始二覺之微旨也大安法師排來而粘  
紙亦知音噭和也既入寂聳碑遺像塑真音安芬蘭寺

國有大賢利溥天子日月石室金學問是七有司之三事者  
吏演曉引入宮吏奉勅將求之已自南山來過牧川橋  
沙川宿云年川又蚊川又橋名櫛橋也遇之佯墮水中濕衣袴吏引師於  
宮機衣曬眼因留宿焉公主果有姪生薛聽聽生而睿  
敏博通經史新羅十賢中一也以方普通會華夷方俗  
物名訓解六經文學至今海東榮明經者傳受不絕嘆  
既失戒生聽已後易信服自號小姓居士偶得優人舞  
弄大犧其狀塊奇因其形爲道具以華嚴經一切無  
尋人一道出生死命名曰無尋仍作歌流于世當時此

삼국유사 권4 의해5 사복불언

「사복불언蛇福不言」조蜂은 12세까지 말을 하지 못했던 어린 사복蛇福과 원효의 인연을 담은 이야기이다. 사복은 후에 흥문사興輪寺에 소상塑像을 모신 정도로 덕망 높은 승려가 된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사복은 그의 어머니가 죽자, 원효에게 같이 장사지낸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효에게 포신수제布施授戒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복은 원효의 죽음이 길다고 터박하기까지 한다. 마치 원효가 사복의 제자인양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규보<sub>李圭甫</sub>(1168~1214)가 부안法安 원효<sub>圓曉</sub>에 들렀을 때 자은 글에는 사복이 오히려 원효의 제자로 표기되어 있어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도 부끄러울 것이다.

이 이야기는 원효가 당시 비루한 사복같은 이와 어울리며 대중교회를 행하던 모습을 빛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이야기에 '살과 죽음 그리고 열반이 함께 한다'는 원효의 사상까지도 염볼 수 있다.

初  
游

能仁

相源能仁最長十丈餘高，根圍五尋，葉全有傳。其下打石龜，背負石室，室裏舊錦洞記載，承龍前故碑，詩妙刻，生清音，字體圓方，常使游人留連忘返。天寫湘江，望遠處，水氣蒸騰，若在塵土上，不以附升級，終不獲無事。至三尺深處而波濤大作，乃謂曰：「世間有此水也！」人見此水，以為天下之水，則世間如幻，便可換本傳。贊曰：「披拂清涼，身至切門關，導化參宗，采采離花，我欲歸心南太伯。」一般春。

妣  
樞不言

年二月十四日行山家會宿。劉裕之難世，有此  
便語多以榮辱之說，可笑。謹曰：國熙，國豈立  
開臨行一曲，沒多無著。生死元非苦。華藏以休。世固

真義傳簡

孫員外說山川形勢，盡知底細。人問他：「那裏有山脈？」  
山脈人以手比畫，說是龍虎之氣也。又曰：「此乃太母山，子母山也。」  
叔柱戊年生至十二歲，被金童山寺僧誨諭，口誦詩句，說他  
請業其師學道。自吾曾入唐愛樂於善道三藏經後。  
王玄策之妹，名雲兒，上元末，召自勃海，充御女。

三國遺事 卷5 感通7 廣德嚴莊

일연—然

33.0×20.8cm

조선 초 14세기 말 목판본

범어사성보박물관

보물 제419-3호

「광덕엄장廣德嚴莊」조條에 따르면, 문무왕 때(661~681)의 승려인 광덕廣德과 엄장嚴莊은 좋은 친구였는데 광덕이 먼저 죽자 엄장이 광덕 아내를 범하려 했다. 그러나 광덕 아내의 꾸짖음에 크게 뉘우친 엄장은 원효에게 달려가 간절히 도道를 구하였고 원효가 쟁관법鉅觀法을 만들어 그를 가르쳤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엄장 역시 몸을 깨끗이 하고 지난 잘못을 뉘우쳐 서방극락정토西方極樂淨土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 당시 신라사회에서 유행하였던 정토신앙의 일면을 엿볼 수 있으며, 그 정토신앙이 뿌리내리는데 원효가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訛



## 원효元曉의 상像을 만들고 그리다

원효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마찬가지로 많은 예술가들에도 영감을 불러일으켜 그는 조각상과 그림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그의상을 만들고 그리는 행위는 그가 입적한 이후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686년 원효가 입적한 후 그의 아들 설총薛聰(?~?)은 그의 유골을 갈아 소상塑像을 만들어 분황사 芬皇寺에 봉안하였다. 이 소상은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1055~1101)이 「제분황사호성문祭芬皇寺曉聖文」을 자을 때는 물론 일연一然(1206~1289)이 「삼국유사三國遺事」를 집필하기 위해 분황사에 들렀을 때에도 존재하였다. 원효의 손자 설중업薛仲業(?~?)도 거사의 모습을 한 소상을 만들어 고선사高仙寺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흥륜사興輪寺 금당에 신라 10대 성인의상을 봉안할 때, 원효의 상도 봉안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소상은 현재까지 남아 있지 않다.

원효는 고려시대 의천의 노력으로 1101년에 화쟁국사和諍國師로 추증된다. 이후 원효에 대한 현장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원효의 진영眞影이 널리 조성되었다. 김부식金富軒(1075~1151)의 「화쟁국사영찬和諍國師影讚」이나 이규보李奎報(1168~1241)의 「소성거사영찬小性居士影讚」 등 고려시대 문인들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제작된 진영은 모두 산실되어 현재 전하지 않는다.

흔히 알고 있듯이 유교 국가인 조선시대에는 불교미술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양대 전란 이후 재건 불사 과정에서 많은 조사들의 진영이 그려졌다. 원효가 창건하였다고 하는 사찰이 80여 곳에 이르는 만큼 많은 사찰에서 원효의 진영을 그렸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남아 있는 조선시대 진영은 불과 2~3점 내외 밖에 없다.

원효를 그린 그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일본 교토 고산사高山寺이다. 고산사는 1206년 묘에明惠(1173~1232)스님이 창건한 사찰인데, 그는 원효와 의상을 매우 흡모하여 「송고승전宋高僧傳」에 실린 그들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화엄종조사회전華嚴宗祖師繪傳」을 조성하였다. 이 절에는 원효와 의상스님의 진영도 함께 전해지고 있다.

### 원효대사 진영

元曉大師 眞影

비단에 채색絹本著色

102.1×52.6cm

일본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1336~1573)

일본 교토京都 고산사高山寺

일본 고산사高山寺 소장 원효대사 진영은 무로마찌시대[室町時代]에 조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진영의 뒷면에는 대승정大僧正 유증有證이 1761년 보수했던 기록이 남아 있다.



원효대사 진영

元曉大師 眞影

비단에 채색繪本彩色

79.0×76.0cm

조선 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원효대사 진영 元曉大師 眞影

원효대사 진영 元曉大師 眞影

비단에 채색繪本彩色

125.2×93.5cm

조선 19세기

범어사성보박물관



海東初祖華嚴講師元曉大和尚之真影



원호대사 진영

元曉大師 眞影

비단에 채색繪本彩色

99.0×66.0cm

20세기 초

문경 원적사



## 원효대사 진영

元曉大師 眞影  
석옹石翁 철유كت彷  
비단에 채색絹本彩色  
97.0x57.0cm  
20세기 초  
개인

19세기 말 석왕사釋王寺에 주석하였던 석옹石翁 철유كت彷(1851~1918)가 그린 진영으로 그림 뒷면에 '원효존자법영元曉尊師法影'이라는 화기畫記가 있어 원효대사암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화기가 없었다면, 미루어 백의관음白衣觀音으로도 여길 만큼 보통의 고승 진영高僧真影과는 다른 모습이다.



원효대사 진영

元曉大師 眞影

박길수·朴基洙

종이에 채색紙本彩色

133.5×67.0cm

1956년

경주 분황사



원曉대사 표준영정

元曉大師 標準影幀

이종상李鍾祥

종이에 채색紙本彩色

117.0×84.0cm

1978년

국립한대미술관

元曉大師像

李鍾祥 謹寫



元曉大師 眞影

석장石鼎

종이에 채색墨本彩色

160.0×88.0cm

1980년대

광주 원효사



### 원효대사 진영

元曉大師 眞影

종이에 채색墨本彩色

96.0×60.0cm

20세기 후반

고양 원효암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北漢山 원효암에 있는 원효대사 진영이다. 원효암은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진 사찰이다.



원효대사 동상

元曉大師 銅像

서울시 용산구

효청공원孝昌公園

원효대사 동상

元曉大師 銅像

경기도 의정부시

원효사元曉寺





# 역대歷代 원효진영元曉眞影의 흐름

김승희 국립경주박물관

## 진영眞影에 비친 의미

특정 인물을 그대로 그려낸 것을 초상肖像이라고 한다면, 승려의 초상은 통상 진영眞影이라고 부른다. 이와 유사한 영정影幀, 진상眞像, 유상遺像, 화상畫像, 도상圖像 등은 그림의 존재 양태나 초상의 어떤 특징을 강조하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참된 그림자’라는 뜻의 진영은 제자가 스승의 존재를 떠올려 수행의 경계로 삼으려는 마음이 잘 드러난다. 각주에 소개한 축문에서도 진영 앞에 선 제자들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다.<sup>1</sup>

1 韓 庚子某年十月某朔某日干支門某等啟狀告于先師某堂大羅院 聲盡

七分如存 言念獎勤 淬齊芝羽 時以庶進  
神其格思 是天莫報 室遵常式 煉之鑄成  
雲乃千載 伏惟尚 謹(유세자 모년 사월 모식 모임  
문손門孫 모 등은 물이가신 스승이신 당장 대선사  
大羅院 嘱咐하신 명령에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진영의 모습 생전과 같으시니 그 정신 생각하고,  
이르신 말씀과 함께 상기하니 어辱 하늘처럼 넓  
고 크신 은혜 보답할 길이 없나이다. 위의 갖춘  
많은 부수들이 이럴듯 정해진 법식대로 때맞춰 온  
갖 제수를 청성껏 올리니니 후손들 전 천 뒤에도  
이어지게 하소서 업드려 고하노니 흥향하소서)  
여기에서 참고로 인용한 『景德御闈』(9세기 후반)  
은 김용사 화장암 영각에 모셔진 진영 속 고승들  
의 치밀한 표지로 기록한 기밀록이다. 앞 표지 인쪽  
에 제자의 축문과 제례순서가 기록되어 있고 이어  
각 선사의 이름과 제일을 차례로 밀사하고 있다.

『개달음』의 길을 간 얼굴들(2000), 직지사성보박  
물관, 207쪽.

2 김행우, 「고승진영」(1990), 대원시, 13쪽.

3 『三國遺事』권3, 「東京開輪寺 金堂十聖」

진영의 조성은 역대 스승의 제계를 세움으로써 문중門中의 입지를 분명히하고 정신적 결속을 다지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sup>2</sup> 종풍宗風의 위상을 높이는데 합당한 훌륭한 승려들은 축문에서와 같이 매년 그들을 기리는 제례와 상시 예배의 대상이 되어 사찰 내 진영각眞影閣에 모셔진다. 무엇보다도 진영각의 주인공은 각 종파의 개산조開山祖이거나 사찰 창건주, 중흥조, 당대 명망이 높은 승려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진영이 산문山門에 본격적으로 제작된 데에는 9세기 이후 사자상승師資相承을 중시하는 선종禪宗의 유산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전부터도 존경받는 승려의 초상은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통일신라 때 흥률사의 경우를 보면, 당시 불교와 국가의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을 하였던 대덕고승들을 모셨던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에는 이른바 신라 심성十聖으로 금당金堂에 아도阿道, 염죽願觸, 혜숙惠宿, 안함安含, 의상義湘 등이 동벽에, 표훈表訓, 사파蛇巴, 원효元曉, 혜공惠空, 자장慈藏 등이 서벽에 소상塑像으로 봉안되었다.<sup>3</sup> 고려 때에는 선종禪宗이 구산선문으로 나누어지면서 개산조들의 진영 제작이 활발하였지만, 전부터 모셔왔던 종지종파와 연관되거나 교종 관련 승려의 초상도 역시 조성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지공指空, 나옹懶翁, 무학無學 등 세 스님이 전기前期에 많이 제작되었고, 후기에는 서산西山, 사명泗溟, 영규靈圭, 진목震默, 화악대사華岳大

師 등 국가에 공을 세웠거나 문파 내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승려를 대상으로 봉안되곤 하였다.<sup>6</sup>

이렇듯 진영 제작에는 각 시대가 원했던 상이 있다. 통일을 이룩한 신라는 국가의 정신적 지주로서 당대의 뛰어난 고승의 진영을 모셨고, 지방호족의 지원을 받았던 고려 초기에는 구산선문 개산조의 진영이 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11세기 후반에는 대각국사 大覺國師 의천 義天(1055~1101)에 의해 침체된 교학불교의 부흥이 도모되면서 다양한 사상적 편린을 종합 발전시킨 원효와의 상 등 전시대 교학승들이 재평가되었고, 그들의 진영이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유교를 지도이념으로 표방하면서 성립한 조선시대에서의 상황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기에는 인도 승려로서 고려에서 활동한 지공을 중심으로, 공민왕의 왕사였던 나옹 해근 惠勤(1320~1376)과 태조를 도와 한양에 수도를 정하도록 조언한 조선 개국 왕사인 무학을 좌우에 배치하는 삼화상三和尙 진영을 모시기 시작했다. 불교의 존립이 위태로웠던 후기에는 각 사찰마다 생존의 방책을 모색해야 했을 정도였다. 따라서 유학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구국의 인물, 가령 서산이나 사명대사의 진영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들로부터 계승되는 문종의 체계를 세우는데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룡사 화장암 영각축원록 影闇祝願錄  
36.7×42.5cm 조선 19세기 후반 직지사성보박물관 소장

### 원효상의 시작

원효는 새로운 불교 지식을 얻고자 당나라로 가는 도중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도를 깨쳤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는 일심一心 사상, 즉 유심론적 세계관을 부각시키고자 설정된 것일 수 있겠다. 또한 유학을 가지 않고 신라에서도 지식과 도를 깨칠 수 있다는 통일신라 사회의 자신감이 원효의 고사故事로 표방된 것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원효는 유학을 포기한 대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원효의 사상은 어느 것에 치우치지 않는 화해와 포용의 관점을 유지했고, 무애행無碍行이 말해주듯이 민중의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실천적 수행의 연장에 있었다. 따라서 원효는 신라의 귀족이나 승려 사회에서 대중에게 더욱 가까운 존재로서 위치해 있었다.

원효의 진용眞容이 신라에 모셔진 것은 분황사와 흥륜사, 고선사 등에서였다. 고선사를 제외한 두 사찰은 신라 왕경의 핵심지역에 위치한 사찰들이다. 8세기 중엽 흥륜사에 원효상이 신라의 십성으로 봉안되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숭배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그러나 원효가

4) 정우택, 「조선시대 후기 불교진영고」, 『해밀문의 길 을 간 얼굴들』(2000), 직지사성보박물관, 218쪽.



고선사터 高仙寺址

경주시 암곡동에 소재했던 고선사는 경주시가의 중심에서 정동방正東方을 향하여 8.5km지점에 위치해 있다.

입적入寂한 후, 그의 첫 번째 진영은 문도門徒나 국가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설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원효는 계율을 벗어던지고 거사居士로서 생을 마쳤으므로, 그에게는 문파가 형성될 리 없고, 국가가 나서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렇다면 원효의 첫 번째 진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삼국유사』의 문구는 원효의 유해를 진흙과 함께 빚어 소상을 만드는데 소용된 것으로 말하고 있다. 즉, 설총薛聰은 그의 유해를 부수어 소상塑像으로 원효의 진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sup>5)</sup> 그럼 왜 설총은 성급하게 그 유해를 소상을 만드는데 다 사용했던 것일까.

고선사 『서당화상비鑄輪和上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수공垂拱 2년(686) 3월 30일 혈사穴寺에서 생을 마치니, 나이 70이었다. 곧 절의 서쪽 봉우리에 임시로 간실을 만들었다.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말 탄 무리가 빼를 지어 장차 유골을 가져가려 하였다.”<sup>6)</sup> 혹여 원효의 유해는 신라의 정치 또는 불교 집단간의 이해 다툼에 이용될 소지라도 있었던 것일까? 만년에 거처하던 혈사의 위치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어쨌든 분황사에 봉안한 원효상은 설총이 옆에서 절하자 소상이 갑자기 그를 향해 돌아보았다고 한다.<sup>7)</sup> 이와 같은 이야기는 원효가 생전에 교단의 외면으로 인왕회에 초대받지 못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의 장례 역시 국가와 교단으로부터 외면당한 것에 대한 민중들의 원망이 반영된 것일지도 모른다. 원효의 사상과 삶은 고하가 없는 평등 세상을 위한 화쟁사상과 무애의 실천이지, 종파적 종지에 얹매인 교단을 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당대에도 원효는 승려로서 요석공주와의 사랑을 이루는 파격적인 행동과 민중 속으로 파고든 보살행으로 말미암아 대중적인 인기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일연은 「원효불기元曉不羈」의 마지막 구절에 원효상에 대해 찬을 붙였는데, “문 닫힌 분황사에 돌아보는 그림자만 공하구나.”라는 행으로 끝을 맺고 있다. 한때 해동종, 분황종, 원효종 등으로 성립될 만큼 원효사상의 파급력은 신라사회에 크게 작용했지만, 그 모든 것이 물려버린 13세기 고려의 분황사 모습을 일연은 그렇게 읊조렸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원효의 다른 초상은 그의 손자인 설종업薛仲業의 주도로 원효 입적 100여 년이 지난 9세기 초에 고선사에 봉안되었다. 고선사는 원효가 주식했던 절로 경주 암곡동(현재 덕동댐 속에 수몰)에 위치해 있었다. 『서당화상비』에 따르면, 원효상을 거사居士의 모습으로 만들어 봉안하였더니 산과 들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찾아들어 우러러 보며 진심으로 정례한 뒤에 강찬講讚하였다고 한다. 이때까지 원효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 모습은 승려로서 뿐만 아니라 거사로서도 민중의 마음속에 함께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5) 既入寂, 塑師請體, 塑真容」(『三國遺事』 권4, 「元曉不羈」).

6) 「高仙寺鑄輪, 像忽迴顧」(『三國遺事』 권4, 「元曉不羈」).

7) 金相鉉, 「元曉真影에 관하여」, 『신라문화재학술발

표회 논문집』 14(1993), 289쪽.

## 의천에 의해 부활한 원효의 초상

분황사의 원효상은 대각국사 의천이 「제분황사효성문祭芬皇寺曉聖文」을 지을 때는 물론 일연이 「삼국유사」를 집필하기 위해 분황사에 들었을 때에도 존재했었다. 「제분황사효성문」에서 의천은 원효상을 보고 “구법求法 사문沙門 의천은 삼가 다과 등 제수를 갖추어 해동교주海東教主 원효보살께 받들이 올리나이다. (중략) 오늘 계림鶴林의 보살님 계시던 옛 절 분황사에서 다행히 생존해 계신 듯한 거룩한 모습을 보고 엣적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저 영취산靈鷲山 봉우리에서 처음 만나 뵈옵던 때를 그리며....(하략)”<sup>8)</sup>라고 하였다. 인용한 「제분황사효성문」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의천은 당시의 분열된 교단의 상황을 “풍습이 천박하고 시대가 혼탁하여 사람이 떠나고 도가 상실되므로, 스승된 이는 이미 각각 자기 종교의 가르침을 익히는데 국한되었고, 제자들 또한 그 보고 듣는 지식을 닦을 수 없습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직 원효만이 성상性相임을 밝히고 서로 다른 다툼의 단서를 화합한다고 하였다. 삼론종三論宗이나 화엄종華嚴宗, 천태종天台宗, 선종禪宗 등은 성종性宗에, 구사종俱舍宗, 법상종法相宗 등은 상종相宗에 해당할 것이다. 대각국사는 원효대사의 회통불교會通佛教 정신에 입각하여 성상겸화性相兼學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sup>9)</sup>

### 역대 주요 원효진영

시대	진영 본안	특징	전기 등
新羅	芬皇寺	塑像, 원효 입적 뒤 아들 설종이 그 유해를 넣어 조성, 놀아보는 모습	의천「芬皇寺曉聖像記」, 「祭芬皇寺曉聖文」
	興輪寺	塑像	興輪寺 金堂 新羅十聖(三藏聖事)
	高仙寺	塑像, 居士의 모습	서당화상비
高麗	玄化寺 등	畫像, 1096년 경 韓忠佛, 玄獎, 空基, 海東의 六相像 등을 그림 『圓覺經句解』 道慶留靄集(道慶留靄山元曉房)	慧德王崩碑
	元曉房 白蓮社	畫像, 원효와 의상진영	『동국이상국집』 『유사봉신기』
朝鮮	高山寺	畫像, 望月台代, 京都 梅巖山, 의상진영과 함께 전래	1761년 大僧正 有盡의 補修記(보듯)
	梵魚寺	畫像, 1947년, 칠레에 의상대사진영(1767) 전래	
	圓寂寺	畫像, 1947년, 문경	
	元曉祖師		개인
	元曉祖師		국립중앙박물관
近現代	元曉尊師	畫像, 石龕 제작	傳禪王寺
	櫻板庵	畫像, 1938년	
	芬皇寺	畫像, 1956년, 불암, 박봉수 제작	
	孝昌公園	銅像, 1959년, 송영수 제작	
	元曉庵	畫像, 북한산	
	佛曉寺	畫像, 의상진영과 함께 불안	
	元曉大師	畫像, 1978년, 이중상 제작	
	元曉寺	畫像, 무등산, 1980년 石龕 제작	

8)『大韓國別文集』, 권제16, 「圓津 大韓國別文集」(1989), 121~122쪽 번역문 참고, 전체 번역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년 월 일 구법 사문 의천은 성가 다과 등 제수를 갖추어 해동교주海東教主 원효보살께 받들이 올리나이다. 삼가 엄드려 생각하옵고, 이치는 교를 안하여 드러나고, 도는 사람을 통해서 널리 선양됩니다. 풍습이 천박하고 시대가 혼탁하여 사람이 떠나고 도가 상실되므로, 스승된 이는 이미 각각 자기 종교의 가르침을 익히는데 국한되었고, 제자들 또한 그 보고 듣는 지식을 닦을 수 없습니다. 저 지은 규기慈恩窟基 대사가 많은 경을 주석하여 백본소주本疏로 고하지만, 그 논의는 상대경계의 표상表象이 명상名相에 구애되어 친태宗에서 90일 동안 일대 설법을 하신 친태지의天台智顗의 설법은 다만 이치로만 관하는 법 만 송장하였습니다. 비록 이것이 법 받을 만한 글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일체를 두루 통한 교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해동보살만이 본성과 성상性相을 환하게 밝히고, 고급의 잘못을 바로 짚었으며, 벽가偈家의 서로 다른 다툼의 단서를 화합하여 일대의 자극히 공정한 논리를 얻으셨으니, 하물며 신봉으로 축량할 수 없고 오묘한 직용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티끌 세상에 비록 함께 하시지만 참 면목面目은 때문하지 않으시고, 범부 속에 비록 함께 웃으시지만 그 본체를 변하지 않으시며, 그 이름은 중국과 서역까지 떨쳐나갔고, 그 자비의 교회는 저승과 이승까지 두루 이치셨으니, 불법의 교화를 도와서 드릴리신 업적은 진실로 어디에 비거어서도 의논할 수 없습니다.

후학 의천은 다행히 속세의 인연이 있어서 일찍이 불법을 사모하고, 선대의 현철賢哲들의 글을 다 살펴보았지만, 성사의 우를 지나는 이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은밀한 가르침의 말씀이 절로 전해온을 가슴 아파하고, 지극한 도가 점차 쇠퇴해 짐을 예식하게 여기며 멀리 명산名山을 찾으면서, 일어버린 자술을 구하고자 두루 다니다가 오늘 계림鶴林의 보살님 계시던 옛 절 분황사에서 다행히 생존해 계신 듯한 거룩한 모습을 보고 엣적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저 영취산靈鷲山 봉우리에서 처음 만나 뵙을던 때를 그리며, 이에 반변치 못한 공양을 드리울고, 감히 작은 정성은 올리오니, 비라을 건네, 두터운 자비를 베푸사 낳게 굽어 살피소서.'

불교국가였던 고려는 오히려 교단의 이권과 종파간의 대립, 불교의 귀족화 등 만인에게 평등한 불교의 본질보다는 각종 불평등과 부조리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었다. 의천은 입적 후 400여 년이 지난 원효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당시 분열된 교단의 화합을 모색했던 것이다. 의천은 자신의 형인 속종에게 건의하여 1101년에 원효에게 '화쟁국사和諍國師'라는 시호를 추증하고, 입비立碑를 명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황사에서 「화쟁국사비」가 세워진 것은 70여 년이 지나서였다.<sup>10</sup> 그것은 원효를 선양하는 데에 기준 세력의 저항이 그 만큼 커음을 의미할 것이다. 어쨌든 시호를 추증하면서 화쟁국사의 진영도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김부식(1075~1151)이 「화쟁국사영찬」이라는 글을 남기고 있는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원효의 진영은 당시 여러 사찰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096년(숙종 1)경에 현화사玄化寺에서는 원효가 포함된 해동海東 육조상六朝像을 모셨다. 이때에는 승려의 모습을 한 원효 진영뿐만 아니라 거사의 모습을 한 원효의 그림도 있었다. 이규보의 「소성거사영찬」이라는 글은 머리에 두건을 쓴 거사 모습의 원효 그림을 보고 쓴 것이다. 이 밖에도 원효의 진영은 부안의 원효방, 상주 사불산 백련사白蓮社 등에도 모셔졌음을 고려시대 문인들의 시문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모두 남아 있지는 않다.

「화엄종조사회전」에서 원효가 등장하는 장면

조사회	권	장면	비고	
원효회	1	1) 당나리에 가기 위해 길을 떠나던 중, 큰 비를 피해 동굴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다. 2) 붉은 귀신이 나타나는 꿈을 꾸다. 3) 해가 저물 무렵, 원효와 의상은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며 헤어지다. 4) 阿堂에서 거문고를 티다. 5) 경론을 강설하다. 6) 야산에 들어가 홀로 좌선하다. 7) 소나무 숲 물기에서 달을 읊다. 8) 仁王會에 초대받지 못하다 (전각 내부의 빈 자리는 원효가 百高座會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임시한 것)		
	2			
	3	9) 「금강삼매경소」를 강설하다. 10) 「금강삼매경소」 5권 완성하다. 11) 문설하다. 12) 다시 3일 만에 3권으로 增補를 완성하다.		
	의상회	1	13) 의상과 함께 당나리로 출발하다. 14) 구름이 앞을 가리다. 15) 무당에서 짐을 지다. 16) 귀신의 꿈을 꾸다. 17) 의상과 헤어지다.	원효회와 일부 중복
		2		
		3		

9) 위의 책, 122쪽.

10) 김상현, 「고려시대의 원효 인식」, 『정신문화연구』

54(1994), 73쪽.

## 고산사高山寺의 원효진영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원효진영은 15세기 일본 무로마치室町 시대에 조성된 고산사高山寺에 전해오는 것이다. 고산사는 1206년 묘에明惠라는 승려가 창건한 화엄종 사찰이다. 도다이지東大寺 출신의 묘에가 고산사를 창건하게 된 계기는 당시 젠지源氏와 헤이케平氏 두 무사 집단이 다투는 내란 상태의 충격 때문이었다.<sup>11)</sup> 또 당시 도다이지에서는 학승들이 당파를 지어 서로 싸우고 있었고, 오로지 승관僧官·승위僧位를 얻고자 하거나 학문적 관심만을 가졌을 뿐 종교적 실천의 의욕이나 열의가 결여되어 있었다.<sup>12)</sup> 묘에는 당파나 승위를 초월한, 아니 승복조차도 벗어버린 신라의 원효에게 매료되었다. 묘에는 원효와 의상을 매우 흡모하여, 『송고승전』에 실린 그들의 일대기를 토대로 죄난成恩으로 하여금 『화엄종조사회전華嚴宗祖師繪傳』을 그리게 하였는데, 현재 남아 있는 6권 중에는 원효회와 의상회가 각 3권씩 구성되어 있다. 『화엄종조사회전』에서는 원효의 다양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17번에 걸쳐 원효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에는 원효의 뒷모습도 있고, 빈자리로 그를 암시하는 장면도 있지만, 한결같이 원효의 공통된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 깔끔한 검정조의 가사를 입고 불자拂子를 든 의상에 비해 원효는 남루한 장裳을 걸치고 딥수룩한 턱수염과 콧수염, 구레나룻까지 있는 어딘가 흐트러져 있고 세속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광채 나는 눈빛과 비범한 표정, 의연한 몸가짐을 한 『화엄종조사회전』의 원효를 자세히 본 사람이라면, 즉각 감



원효진영(원쪽) · 의상진영(오른쪽)

元曉真影(左) 義湘真影(右)

102.1×52.6cm(원쪽), 106.7×63.8cm(오른쪽)

일본 고산사高山寺



원효진영(왼쪽) · 의상진영(오른쪽) 元曉真影(左) 義湘真影(右)

79.0×76.0cm, 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11) 본 책에 실린 西山 厚의 글 참조.

12) 李箕永, 「明惠上人の生涯에 나타난  
元曉大師의 影響」,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 논문집』3(1982), 185쪽.

동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를 흡모하게 될 것이다.

고산사에 소장된 원효진영은 이모본移模本으로 추측되는데, 일본의 화승畫僧이 조선에 와서 베껴간 것인지 우리나라의 화가가 그린 것인지 확실치 않다. 다만 초상화의 양식이 일본풍이 아니라 우리나라 초상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원본에 충실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고 한다.<sup>13)</sup> 또한 고산사에는 원효진영과 함께 보관된 의상의 초상도 원효진영과 대칭되는 형상의 좌안칠분면左顛七分面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원효와 의상의 진영이 짹을 이루어 함께 봉안되는 양상은 고산사 뿐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진영에서도 확인된다. 이 경우, 두 진영을 함께 제작하고 봉안하므로 두 그림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규격에서부터 인물의 자세나 포지, 배경이나 기물, 표현법 등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산사의 경우는 두 진영에 담긴 공통된 역사적 맥락과 유사한 형상이 보일 뿐, 회화적으로는 서로 상이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등받이가 높은 법좌法座와 신발을 올려놓은 단대踏臺, 의자 위에서 가부좌하고 앉아 있는 두 인물의 양식화된 자세 등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동일계 그림의 기본적인 표준이 되는 규격과 채색의 사용 정도에서는 두 그림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두 인물의 성격과 행적, 외모적 특징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그러한 조형적인 요소들이 화면에 적용된 것이 아닌가 한다. 약간 살이 오른 미남형의 얼굴과 귀족적인 풍모를 나타낸 의상진영은 좀 더 채색의 강도를 높게 한 반면, 진취적인 사고와 파격적인 행동, 대중적인 면모에 더욱 가까운 원효의 진영에는 무채색에 가까운 색조를 화면에 운영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원효의 얼굴에 드러나는 많은 주름선과 턱수염과 더불어 콧수염, 구례나릇 등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특징의 강조는 원효의 개성을 나타내는 요소로써 오히려 적극 활용된 듯한 느낌이다.

의상의 얼굴에 드러난 것과 같은 절은 채색 대신에 먹선이 드러나게 표현된 원효의 얼굴 주름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바다처럼 넓은 이마에 깊게 패인 파도와 같은 주름은 넓고도 깊은 그의 사상을 표현하고자 한 것일까. 존재에 수반된 번뇌와 고통을 함께하고자 계율을 넘어 대중의 삶 속으로 뛰어든 용기 있는 행동과 사랑, 포용력은 눈가에 맺힌 많은 주름이 말해주는 듯하다.

고산사의 원효진영은 이모된 것이다. 이모라고 하더라도 진영을 조성할 때 화가는 사찰에 보관된 「화엄종조사회전」을 참고로 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즉, 「화엄종조사회전」에서 원효의 사상과 성격, 개성적인 면모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진영 가운데 고산사본은 가장 원효의 진용에 근접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13) 유흥준, 「국내 첫 공개된 일본 高山寺 소장 원효 의상진영」, 『중앙일보』(2000. 9. 27).

## 원효진영의 정형화定型化

15세기 경 고산사에서 원효진영이 제작될 무렵 조선의 상황은 이와 전혀 달랐다. 원효진영의 맥은 조선시대에 들어 한동안 뚝 끊긴 듯 이번 조사에서도 국내에 전하는 18세기 이전에 제작된 원효 진영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왜 원효 진영을 활발하게 제작하지 않았던 것일까. 원효를 표방한 많은 사찰에서조차 그의 진영을 찾아 볼 수가 없으니 말이다. 반면 중흥조에 해당하는 서산이나 사명대사의 진영은 많이 남아있다. 지속적인 억불정책으로 위축되었던 조선시대 불교 교단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외적이 침입했을 때 사명대사를 비롯한 당시 승군僧軍의 구국활동에 힘입어 불교가 한때 중흥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또 서산대사는 피폐해진 불교계를 수습하였고, 그를 따르는 많은 승려들에 의해 교단이 안정되어 전란으로 피해를 입은 사찰의 중건사업이 속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진용을 다투어 모았다. 한편, 17세기 무렵부터 진행된 각 사찰의 중건 사업은 서산이나 부휴선수浮休善脩, 편양언기鞭羊彥機 등 법맥의 계승을 축으로 하면서 많은 진영을 제작하였다.



신륵사 삼화상진영 무학화상(원쪽), 지공화상(가운데), 나옹화상(오른쪽)

神勒寺三和尚真影 無學和尚(左), 誌公和尚(中), 懶翁和尚(右)

79.0×133.7cm, 19세기, 여주 신륵사

조선 후기의 그러한 당대 문중의 체계를 일신하려는 작업은 19세기 초반까지 이어졌고, 이어서 19세기 내내 그것이 확대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그러한 19세기의 양상은 당시 사원을 중심으로 조직된 각종 계획가 활성화되고 승려들의 토지 소유가 부분적으로 인정되면서 사원경제에 숨통이 트인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 신분상승이나 새로운 족보체계를 구축하려는 당시 일반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때부터는 원효와 의상, 자장, 그리고 지공·나옹·무학 등 역대의 고승들을 다시 봉안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통도사의 경우, 1804년에 계한戒闇에 의해 조성된 자장진영과 1807년의 삼화상 등이 봉안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제작된 범어사, 원적사圓寂寺,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원효진영은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두까지 이어진 그러한 분위기를 잘 반영한다.

현재 범어사 원효진영의 존재는 바로 소강기에 접어든 원효상의 흐릿한 명맥을 잊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에 범어사에서는 사명진영과 함께 원효진영이 제작되었다. 먹이 들어가서 탁해진 군청색의 장삼에 표현된 과도한 농담처리나 기교, 菲진逼眞하게 묘사된 바닥의 화문석 등에서 19세기적 특징을 읽을 수 있다. 수목 선염으로 원효의 특징인 수염자리를 만들면서 미세한 필선으로 섬세하게 수염과 귀털, 속눈썹까지 묘사한 얼굴 표현 등으로 볼 때, 그러한 점들은 이 그림이 조성될 당시 사내寺內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결과일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한편, 원효진영의 배경에 반복된 만자문<sub>만자文</sub>이나 역시 사명 진영의 벽면 배경에 표현된 꽃살형 격자무늬는 1791년에 조성된 비로전 비로자나후불도의 광배에 보이는 문양과 친연성이 있어 주목된다.

범어사 원효진영은 그 유래가 드문 독특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고개를 돌려 정면향이 된 범어사 원효진영은 설총에 의해 최초로 조성되어 분황사에 모셨던 그 모습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만일 그렇다면 범어사 본은 설총이 옆에서 절하자 원효의 전용이 그를 향해 돌아본 방향을 정면으로 설정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추측을 전제로 한 것이며, 남아 있는 의상진영(1767)은 물론 봉안된 다른 진영들과도 면밀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특히 1791년의 불화불사뿐 아니라 이 시기에 제작된 말사인 원광사의 불화, 그 이후 불화 불사의 성격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660년(무열왕 7)에 원효가 창건하였다고 전하는 원적사는 1885년(고종 22)에 중수한 바 있다. 이 사찰에 전하는 원효진영은 화문석 바닥에 가부좌하고 원손으로 불자를 들어 어깨에 걸치고 있으며, 오른손으로는 염주를 들리고 있는 전형적인 19세기 후반의 진영 모습을 하고 있다. “해동초조원효조사진영

海東初祖元曉祖師真影”이라는 방제가 있으며, 역시 얼굴에 구레나룻과 수염이 표현되어 있어 원효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표현되어 있다. 눈썹이 특이하게 꺾여 올라간 모습이 이채로우며, 이마를 비롯하여 눈과 입가에 깊게 패인 주름이 표시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화면 전체의 획일적인 음영 표현 등으로 볼 때, 1885년 이 사찰의 중수 시 이 진영도 함께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봉안되었던 사찰은 알 수 없으나 호림박물관에 소장되었다고 잘못 알려진 원효와 의상,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원효와 의상의 진영이 있다. 원효와 의상은 한 조를 이루는 진영으로 봉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대칭을 이루는 인물의 구성과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제작되므로, 간혹 두 인물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고 유형화된 틀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를 진영에서도 정형화된 이 시기의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실제 인물의 성격이나 행적에서 드러나는 개성적 특징은 사라지고 유형화된 동일성의 범주에 안주해버리고 말았다는 생각이 든다.

선종을 우위에 둔 교단과 억불정책의 시대 속에서 원효의 존재성은 주춤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19세기 초반 경부터 법맥으로서 원효는 다시 피어나 각 사찰에서 초조初祖 진영으로 모셔지게 되었다. 이때는 그러나 외형상으로 드러나는 족보의 전통에 과한 집착을 보임으로써 원효의 참된 정신은 소홀하게 다뤄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정형화된 진영 제작의 조건 속에 원효의 진용도 묻혀버리고 말았다. 의상과 한 조가 된 원효의 진영 제작도 유형화된 담습으로 전개된 이른바 이름만 원효상일 뿐이었다.

### 원효진영의 현재

원효를 개산이나 창건, 중창주로 하는 사찰은 전국에 80여 곳에 이른다. 이 사찰들은 원효가 창건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것은 근대 이후 인지도가 높아진 원효를 끌어들여 정통성을 보장받으며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사찰 측의 자구책 중에 나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원효에 대하여 가지는 인상은, 그것이 학술적이든 대중적이든, 멀리는 고려시대의 의천과 일연에 의해서, 가깝게는 일제시대의 육당 최남선과 춘원 이광수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sup>14)</sup> 그들은 식민지로 전락한 데 따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유교 대신 또 하나의 전통적인 불교에서 민족적 영웅상을 모색하였던 것인데, 마침내 고려 이후 잊혀졌던 원효를 재발견하게 된 것이었다.<sup>15)</sup> 그러나 그러



원효진영(원쪽) · 의상진영(오른쪽)

元曉真影(左) 姚湘真影(右)

19세기, 개인

14) 남동신『원효』(도서출판 새누리, 1999), 11쪽.

15) 위의 책, 11쪽 참고.



원효진영 元曉真影

1938년, 척판암 錄版岩

한 현상도 원효에 대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었으므로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어쨌든 80여 곳의 사찰 중에 실제 원효의 진영이 봉안된 사찰은 10곳이 채 안된다. 19세기에 제작된 범어사와 원적사의 원효진영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모두 20세기에 제작된 것들로 척판암, 분황사, 북한산 원효암, 울진 불영사, 무등산 원효사 등에서 현재 원효진영을 봉안하고 있다. 그밖에 사찰에 모시지는 않지만, 근대 화승으로 이름을 떨친 철유喆侑(1851~1917)가 그린 것과 1970년대 문화공보부의 위촉으로 이종상李鍾祥이 그린 '원효표준영장' 등이 있다.

철유가 그린 원효의 초상은 마치 백의관음白衣觀音을 연상시키는 하얀 두건과 장삼을 입고 가마(韁) 안에 앉아 명상에 잠겨있는 모습이다. 그림은 인물의 의습과 가마에 사용된 정교한 철선묘, 담백하면서도 정치한 무늬 표현 등으로 볼 때 매우 정성을 기울여 제작한 것이며, 그러한 공필력의 바탕은 가마의 묘사에 보이는 것처럼 사물의 관찰로 얻어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은 원효의 진용을 옮기는데 주력하였다기보다는 이상화된 원효보살의 모습을 근대적 관점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척반이구중櫛盤而求衆(밥상을 던져 무리를 구하다)' 설화와 관련이 있는 척판암의 원효진영은 1938년에 제작된 것이다. 의자에서 가부좌를 틀고 있는 자세로, 산수화가 그려진 병풍을 배경으로 흰 수염을 가진 원효 노년의 모습을 그렸다. 한편, 1956년 경주 출신 화가 박봉수朴奉洙에 의해 제작된 원효진영은 현재 분황사 보광전寶光殿에 모셔져 있다. 반신상에 가까운 원효상은 활달한 현대적인 필법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한국화에 다채로운 주제와 기법을 실험적으로 구사했던 박봉수는 원효진영에서 수묵담채의 담백함으로 대덕大德의 품격을 우아하게 표출해내었다. 그밖에도 북한산 원효암에는 6.25동란 이후에 제작된 원효진영이, 울진 불영사에도 최근에 조성된 의상과 함께 봉안된 원효진영이 봉안되어 있다. 광주 원효사에는 석정石鼎이 1980년대에 제작한 원효진영을 모시고 있다.

이상, 역대 원효진영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원효진영은 시기적으로 크게 네 번에 걸쳐 주목받았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신라 때 그의 자손 설총과 설중업에 의해 원효와 관계 깊은 분황사와 고선사 등에 그 진용이 모셔졌던 경우이다. 나아가 원효진영은 신라인의 정신적 지도자를 선양하기 위해서 조성한 신라설성 중에 한 사람으로 흥륜사에 봉안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는 원효에 대한 당대의 평가를 직접 반영한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고찰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두 번째의 경우, 원효는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재평가되면서 화쟁국사상으로 다시

모셔졌고, 고려 후기는 일연에 의해 재인식되기도 하였다. 세 번째는 19세기에 거의 잊혀졌던 원효를 일부 사찰의 부흥에 힘입어 다시 살려내어 창건주로 또는 중건주로 새롭게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았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일제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라 사상계의 지도자로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적 영웅으로 묘사되었다. 일제 때에는 일본에서 조차 그 독자성과 위대함을 인정하는 객관성을 담보한 인물로서 원효가 선택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최근에 제작된 원효진영은 세 가지의 역사적 맥락 중에 어느 한 가지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박봉수의 원효진영처럼 역사인물화의 현대적 재해석의 결과물로 탄생된 작품 계열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효창공원에 건립된 원효상처럼 근대에 형성된 민족적 영웅상의 연장선상에서 조성되는 작품 계열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19세기에 일부 사찰에서 자신들의 도량에 전통의 옷을 입혀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원효가 차용되었던 것처럼, 사찰의 필요에 의해 선조先祖 모시기의 일환으로 제작되는 경우라고 하겠다.

여러 번에 걸친 각 시대마다의 원효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분열이 극심하거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두되었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원효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가 원하는 상으로 거듭 태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근년에 제작된 일부 원효의 초상은 '진영'이 품고 있는 깊은 영혼의 품격을 느낄 수가 없다. 원효는 흡모하지만, 그 진용眞容을 조형적으로 구현해 내려는 진지한 고민이 적었던 것은 아닐까. 서두에서 밝힌 '참된 그림자', 진영眞影에 비친 의미에 초점을 두어 현재 만연된 원효상의 모습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원효상, 원효 진영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원효진영 元曉真影  
불영사佛影寺 소장

## 화엄종조사회전

華嚴宗祖師繪傳

종이에 채색紙本彩色 원효회元曉繪

31.7×1414.5cm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1185~1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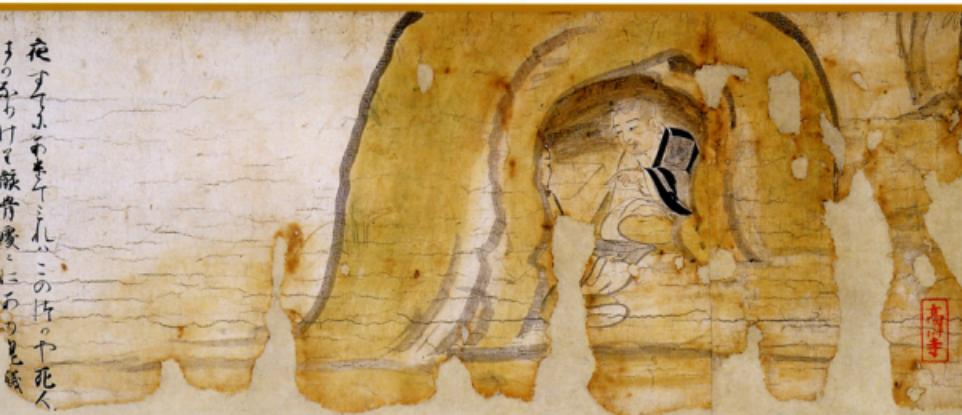
일본 교토 京都 고산사 高山寺

일본 국보國寶

『화엄종조사회전華嚴宗祖師繪傳』은 1206년 고산사 高山寺의 창건주인 묘에明惠(1173~1232)가 평소 흡모하던 원효와 의상의 행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죠닌成忍에게 부탁하여 그린 그림이다. 이것을 보통 『화엄연기華嚴緣起』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그림의 바탕은 『송고승전』에 있다.

『화엄종조사회전』은 시기에 따라 편제가 바뀌었는데, 후승後崇 광원光院(1372~1456)의 『간문어기看御記』에 따르면, 1433년에는 이 회권이 의상대사회義湘大師繪 4권과 청구대사회靑丘大師繪 2권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청구대사는 원효를 일컫는다. 이후 여러 차례 체계를 바꿔 현재는 의상회 3권, 원효회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권1 卷1



원효와 의상은 당나라에 가기 위해 길을 떠나던 중 큰 비를 피해 동굴 안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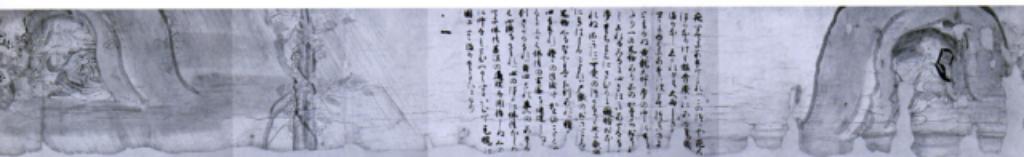




큰 비가 내리는 모습



원효, 귀신 꿈을 꾸다.





해가 저물 무렵, 원효와 의상은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며 헤어진다.  
원효는 머물고 의상은 나이가는 장면



유유자적한 원효의 삶  
원효는 어떤 때는 길기에 앉아서 가문고를 연주하기도 하였다.





유학 길에서 돌아온 원효는 엄청난 양의 인도와 중국 서적을 독파하였다. 조정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깊이 그에게 귀의하여 그 이름이 친하에 널리 알려졌는데, 때때로 경문의 주석을 붙여 강설하기도 하였다.



원효는 어떤 때는 야산에 들어가 홀로 좌선하였다. 주위에 모여든 독수리, 매와 호랑이, 이리마저 그 위엄에 굴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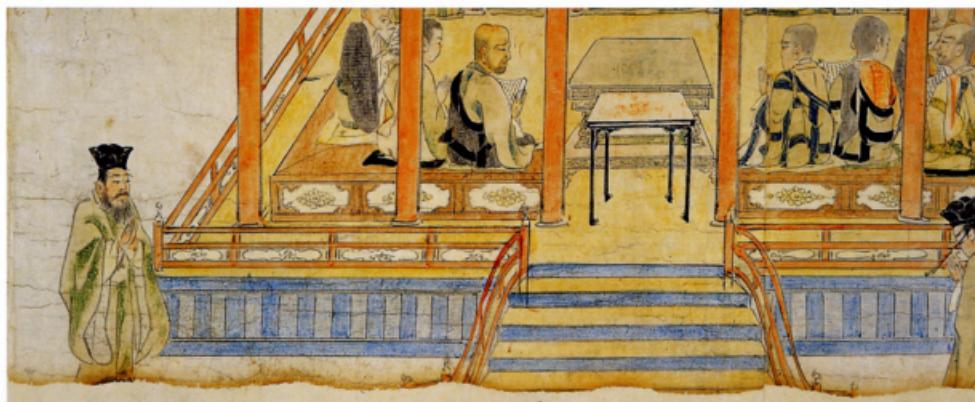
물가에서 달을 읊는 원효

달을 노래하는 장연



인왕회(王會)에 참석한 왕이 타고온 수레와 검은 소





백고좌회百高座會에 초대받지 못하다. 원은 천하의 명승 100명을 불러『인왕반야경王般若經』을 강론하는 인왕학회<sup>仁王會</sup>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괴이한 행적을 일삼는 원효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다. 전각 중앙의 빈 턱자는 원효가 백고좌회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표현한 것이다.



왕비의 병을 고치기 위해 당나라에 칙사를 파견하다. 어느 날 왕비가 종양이 생겼는데, 백방의 의술을 써도 효력이 없었다. 한 점쟁이가 당나라에서 악을 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자 왕은 당나라로 칙사를 보낸다.

“병원은 어떠하십니까” / “대단히 큰 일입니다.”



병이 깊어진 왕비의 침소를 묘사한 장면이다. 장막으로 둘러쳐진 침소 가운데 베개를 베고 이불을 끌어 당긴 채 누워있는 왕비의 모습이 보이며, 그 주위에는 왕과 악을 받쳐 든 시녀가 보인다.



침쟁이를 불러 뭉는 장면  
“점괘가 어떻게 나올지”





용신의 시자가 칙사의 배에 다가오는 장면

“저것보십시오”



칙사를 따라 용궁에 들어가는 장면

“저 놈들은 가까이 두고 부리는 것들입니다. 아래턱이 길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자쪽으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 경전을 정강이 속에 넣어 가시오”

“아프지는 않겠습니까”

“안간 습속에 의기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왕의 사자 칙사를 대동하고 돌아가는 장면



용궁을 나와 왕궁으로 가는 장면





“꼭 오시라는 왕의 뜻을 전합니다.”

“대안 대안”

“이 같은 친인이 왕궁에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안이 왕궁으로 들리는 왕의 청을 거절하는 모습과 대안이 거닐던 시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거 알마요” / “삼백쯤으로 생각하지만 얼마나 좋겠소”

“내게 물건값을 물어내라” / “너무하군 이크”





“저런 세상에 이게 무슨 꿈이야” / “그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지요” / “이 베는 한 길은 된다오”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베군” / “언제까지 네가 거기에 있겠다고”



대안성자의 거처로 경을 보내는 장면





경전經典의 품류品類를 분류하는 대안성자大安聖者. 하름한 초막 안 책상에 경전을 펼쳐 놓고 생각에 잠긴 대안성자의 모습이다. 곧이어 대안에게서 경전을 받아 왕궁으로 돌아가는 칙사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대안, 자신의 임자에서 경의 품류를 나누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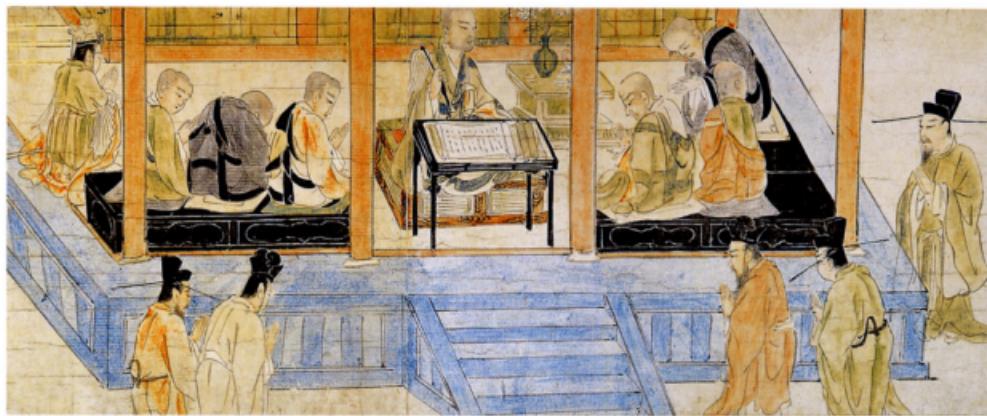


칙사, 대안성자의 거처로부터 경을 받아 왕궁으로 가는 장면





최사가 대인이 분류한『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을 왕에게 바치는 모습.



원효, 금강삼매경을 강설하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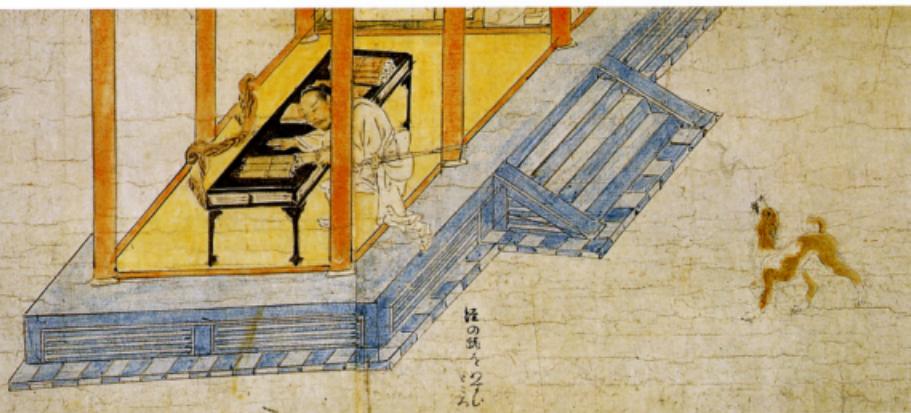
전각의 중앙에는 원효가『금강삼매경소金剛三昧經疏』두루마리를 펼쳐 놓고 강설하고 있다. 늙은 스님이나 젊은 스님은 물론 왕도 경청한다.





원효가 밤에서 두문불출하여 『금강삼매경소금剛三昧經疏』를 되고하고 있다.

원효, 경소를 짓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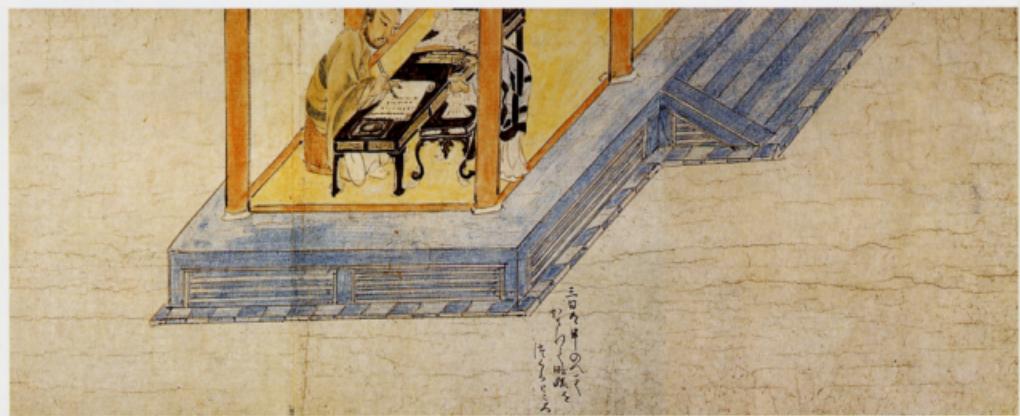


경소를 훔치는 장면





경소가 입자 놀라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과 임담해하는 원효가 보인다.  
‘이런 희안한 일이 있다니’



3일 밤낮으로 쉼 없는 작업 끝에 원효는 3권으로 된 약소를 완성한다. 이를 전해들은 왕은 원효를 왕궁으로 불러들인다.  
3일을 미루어 거듭 약소를 짓는 장면



